4일 Market Index
코스피 5683.80 (+35.01)
코스닥 714.95 (+10.56)
금리(국고채 3년) 3.714 (-0.022)
환율(원·달러) 1341.5 (+0.5)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민주당, 4년만에 상·하원 장악 '블루 쓰나미' 덮쳤다

美 중간선거

텍사스·캔자스 등 공화당 보유한 상원 의석수 7개 민주서 가져가
트럼프 행정부 심판론 작용한 듯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압승했다. 텍사스와 캔자스 등 공화당 텃밭에서도 민주당이 상원 의석을 가져갔다. 중간선거에서 양원 다수당이 동시에 바뀐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거센 심판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인상에, 과도한 관세정책이 초래한 물가상승으로 미국 유권자들이 화가 났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4일 외신을 종합하면, AP통신은 민주당이 상·하원 양원의 다수당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미 ABC뉴스도 한국시간 4일 오후 4시 38분까지 선거구별 당선 예측을 합산한 결과, 하원은 민주당 229석, 공화당 164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하원 과반선은 218석이다. 상원에선 무소속 2명을 포함한 민주당계가 54석, 공화당이 43석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다수당 탈환은 하원에서 4년 만, 상원에서 2년 만이다.

선거 전 상원에서 공화당에 53석 대 47석으로 뒤졌던 민주당계는 다수당이 되려면 4석을 늘려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텍사스·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오하이오·아이오와·노스캐롤라이나·메인 등 공화당이 보유했던 상원 의석 7개를 가져왔다. 특히 접전지 미시간에서도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이겨 기존 민주당 의석을 지켰다.

텍사스에선 제임스 탈라리코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한 켄 팩스턴 공화당 후보를 꺾었다. 캔자스에선 애덤 해밀턴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현역 로저 마셜 의원을 눌렀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3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버밍엄의 셰라톤 버밍엄 호텔에서 앨라배마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더그 존스의 지지자들이 미 상원의 민주당 장악을 알리는 화면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AP·뉴시스

AMD 최대실적… 삼성·SK, HBM4 '순풍'

3분기 매출 18조, 전년비 45%↑
MI455X, 메모리 50% 더 탑재
국내 공급사들도 수혜 확대 예상

AMD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판매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AMD는 전작보다 메모리를 50% 더 탑재한 신형 인공지능(AI) 가속기를 앞세워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향후 해당 가속기를 탑재한 서버 생산이 확대될 예정인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판매도 확대될 전망이다.

4일 AMD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133억7700만달러(약 18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적 성장은 데이터센터 부문이 이끌었다. 이 부문 매출은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에픽'의 수요 증가와 신형 AI 가속기 '인스팅트 MI450' 계열 출시에 힘입어 97% 늘어난 85억5000만달러(약 11조5000억원)를 기록했다.

헬리오스 생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판매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핵심 가속기인 MI455X는 메모리 탑재 용량이 전작보다 50% 많은 432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만큼, 국내 공급사들의 수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 3월 AMD와 업무협약을 맺고 MI455X용 HBM4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됐다. 기존 MI350 계열에 HBM3E를 공급한 데 이어 신형 가속기에도 메모리를 공급하는 만큼 AMD의 생산 확대에 따른 납품 증가가 예상된다.

이미 HBM4는 삼성의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29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 따르면 3분기 HBM4 매출은 전 분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HBM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60%로 높아졌다.

삼성전자와 AMD의 협력은 AI 가속기용 HBM에 이어 서버용 D램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두 회사는 헬리오스와 6세대 에픽 CPU에 최적화한 고성능 DDR5 D램을 공동 개발 중이며, 양산 공급 여부와 구매 물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SK하이닉스도 AMD의 신형 AI 가속기에 필요한 HBM4 공급에 참여하고 있다. 수 CEO는 지난달 7일 방한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를 기반으로 MI455와 헬리오스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MD의 헬리오스 생산 확대는 SK하이닉스의 HBM4 증산 일정과 맞물린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에서 올해 말까지 청주 M15X 생산능력을 최대 수준으로 높여 HBM4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분기에는 HBM4가 출하량과 매출 모두 HBM3E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HBM 공급을 위한 거래 조건 협의도 각각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공급 물량의 가격 협상을 마쳤으며 이미 완판된 상태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역시 내년 공급 물량과 가격을 포함한 거래 조건 협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두 회사의 AMD향 제품별 공급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다.

AMD도 내년 성장에 필요한 부품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수 CEO는 이번 컨퍼런스콜에서 "고객의 도입 일정에 맞춰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등 주요 부품을 확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며 공급망 협력사들과 공급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디지털자산 기본법부터 제정
기업·투자자 적응기간 둬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4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이번 제안은 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이 전날(3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당 지도부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를 건의한 다음날 이뤄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골자다.

김 대표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과 세가 미뤄진 적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2년 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에선 청년들이 가상자산을 자산형성의 사다리로 여기고 있는 점과, 대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를 일정 정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다만, 재경위 내에선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 원칙에 입각해 가상자산 과세를 늦춰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 시차 ▲디지털 자산 기본법 도입과 함께 과세 ▲과세 안정성 시뮬레이션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과세를 위한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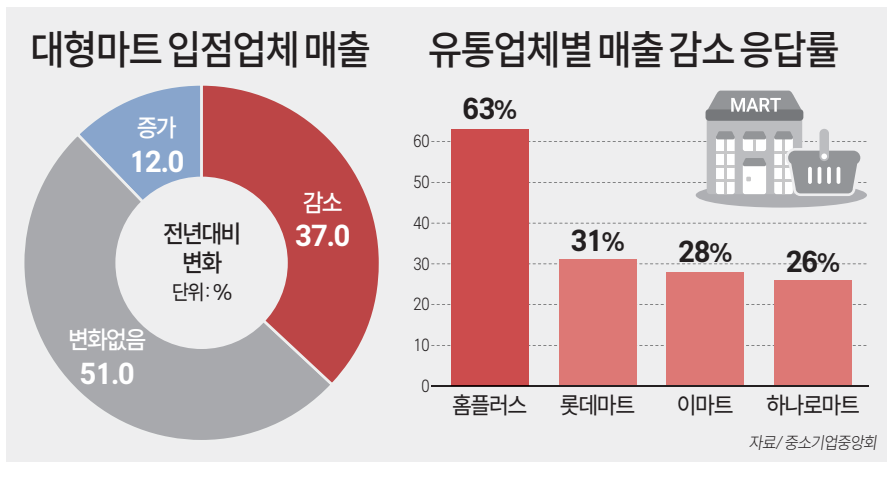
메트로 한줄뉴스



▲예결위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공방…與 "재정 안전장치" 野 "총선용 사금고"
▲박지원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져…트럼프, 중간선거 참패하면 돌파구는 북핵 문제" /사진 뉴시스
▲與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올릴 예정"
▲김남희 "李정부 성공·총선 승리, 모두의 여성위원회가 뒷받침"
▲한 총리 "이제는 불평등·양극화 넘어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
▲박홍근 "내년 예산, 잠재성장률 제고·양극화 완화에 중점"

대형마트 입점업체 매출 감소 '뚜렷'… 홈플러스 피해 집중

중기중앙회, 中企 거래 실태조사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악영향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응답도



'홈플러스 사태'가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마트 입점업체 10곳 중 4곳은 매출이 감소했다. 대형마트로부터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입점사 대부분은 홈플러스와의 납품대금 정산 지연 문제가 가장 컸다.

특히 홈플러스로부터 피해를 당한 비율은 다른 대형마트에 비해 6~7배나 높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9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는 백화점의 경우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현대, AK플라자 그리고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입점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입점업체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곳은 37%로, 백화점 거래 감소 업체 비율(21%)보다 높았다.

특히 대형마트 입점 의류 업체들은 53.1%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해 화장품·미용품(44.3%), 가구(40%), 도서·문화·악기(36.4%) 등보다 높았다.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가 가장 많았던 대형마트는 홈플러스가 63%로 단연 높았다. 이는 롯데마트(31%), 이마트(28%), 하나로마트(26%)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대형마트로부터 불공정거래 등을 경험했다고 답한 기업은 20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90%가 홈플러스와 납품대금 정산 지연 문제였다. 반면 지난해 기준으로 백화점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등을 경험했다고 답한 거래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22%는 대형마트의 매장 축소 또는 점포 폐쇄 등 운영 전략 변화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2%는 홈플러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대금 정산 지연'이 97.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형마트의 입점 여건은 85.8%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지만 11.8%는 '입점 여건이 악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프라인 유통업체 입점 형태는 백화점은 특약매입(75%), 대형마트는 직매입(91%)이 주를 이뤘다.

'특약매입'이란 백화점 등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후 상품판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직매입'은 대형마트 등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다.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입점 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26.1%, 대형마트가 20.2%로 나타났다.

특약매입·임대을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의 경우 최고는 ▲현대(38%) ▲AK·갤러리아(36%) ▲신세계(35%) ▲롯데(33.0%), 최저는 ▲롯데·신세계·현대(10%) ▲AK·갤러리아(15%) 순이었다.

대형마트 수수료율은 최고가 ▲롯데마트(26%) ▲홈플러스(25%) ▲이마트·하나로마트(20%), 최저는 ▲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10%) ▲롯데마트(18%)였다.

직매입 평균 마진율은 백화점이 20.6%, 대형마트가 21%로 각각 조사된 가운데 최고 마진율은 대형마트의 경우 ▲롯데마트(46.7%) ▲이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40%), 백화점은 ▲롯데(33.3%) ▲AK·갤러리아·현대(30.0%) ▲신세계(26.0%) 순으로 높았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 시장 성장과 내수 부진으로 입점업체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수수료 부담은 여전한 만큼 입점 업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수수료와 납품대금 지급기한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유통업계와 중소기업이 함께 논의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이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쿠팡Inc, 14조 매출에도 적자… 김범석 "내년 수익성 회복"

〈쿠팡Inc 의장〉

올해 적자 지속… 영업손실 1.8조 이상
비식품 즉시배송·대만 물류사업 확대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올해 3분기까지 1조8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부분을 상쇄했다. 3분기 매출은 14조원을 돌파했지만,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손실과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4일(한국시간)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3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99억6200만달러(14조2209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달러 기준 7%, 원화 환산 기준 11% 증가했다.

반면 영업손실은 4억5000만달러(6423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6200만달러(2245억원)의 영업이익에서 적자 전환했다. 올해 1분기 3545억원, 2분기 8350억원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다. 3분기 영업손실은 2021년 미국 증시 상장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실적에는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 관련 비용 2억4800만달러(약 3540억원)가 반영됐다. 전체 영업손실의 약 55%에 해당한다. 화재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손실은 2억200만달러(약 2884억원)에 달했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부담도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3분기 매출원가율은 전년 동기 70.6%에서 74.3%로 높아졌고, 판매관리비는 17.7% 증가했다. 매출총이익률은 3.64%포인트 하락한 25.7%를 기록했다. 전사 조정 에비타(EBITDA·상각 전 영업이익)는 1억1600만달러(약 1656억원)로 72% 감소했다.

주력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도 매출 성장과 수익성 악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로켓배송·로켓프레시 등을 포함한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은 83억7400만달러(11조954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원화 기준 8% 증가했다. 그러나 조정 에비타는 3억8500만달러(5495억원)로 45% 감소했고, 이익률도 8.8%에서 4.6%로 낮아졌다.

활성고객은 2520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 증가했다. 고객 1인당 매출은 47만3930원으로 6% 늘었다. 대만 로켓배송·파페치·쿠팡이츠 등을 포함한 성장사업 매출은 15억8800만달러(2조2669억원)로 고정환율 기준 27% 증가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조8318억원으로 최근 3년간 거둔 영업이익 합계 1조8987억원의 96.5%에 달했다. 쿠팡Inc는 2023년 6174억원, 2024년 6023억원, 2025년 67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불과 9개월 만에 대부분을 상쇄했다. 누적 영업손실은 종전 최대 연간 적자를 기록했던 2021년의 1조7088억원도 넘어섰다.

당기순손실 역시 크게 불어났다. 3분기 순손실은 7151억원으로 전년 동기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올해 누적 순손실은 1조9608억원으로 최근 3년간 거둔 당기순이익 합계 1조40억원의 약 1.95배에 달했다.

쿠팡은 수익성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은 이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프로덕트 커머스의 수익성이 내년 중반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장은 "프로덕트 커머스는 내년 중반 회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순항 중이며 본질적인 고객 행동 패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했다.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는 공급망 차질과 고정비 부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탈한 고객을 되찾기 위한 마케팅 투자 확대를 꼽았다. 고객과 주문량이 회복되면 물류시설 가동률이 높아지고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이 요인들 중 어느 것도 구조적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 와우 멤버십 회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복귀 회원의 소비도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국내에서 쿠팡이츠를 통한 비식품 즉시배송을 확대하고, 대만에서는 새벽배송과 물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랍 아난드 쿠팡Inc 최고재무책임자(CFO)는 4분기 연결 매출이 고정환율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3~14% 증가하고, 조정 에비타 이익률은 3분기보다 0.5~1.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서울·수도권·지방 주요단지 신고가 행진

대통령 하락 발언에도 시장흐름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지방 곳곳에서는 종전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과 수도권, 지방 주요 단지에서 종전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잇따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전용 약 129㎡는 지난달 6일 3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를 4억8000만원 경신했다.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 전용 약 142㎡도 지난달 26일 44억5000만원에 손바뀜해 기존 최고가보다 1억5000만원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전용 약 109㎡는 지난달 15일 26억7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보다 1억7000만원 올랐다.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도 지난달 3일 35억원에 거래되며 기존 최고가를 1억원 넘어섰다.

경기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더샵아이파크' 전용 142㎡는 지난달 17억8500만원(12층)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의 직전 최고 거래가격인 16억1500만원보다 1억7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자이센트럴파크' 전용 84.99㎡ 분양권도 지난달 31일 16억292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격보다 3억7410만원 올랐다.

세종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나성동 '나릿재마을6단지'는 지난달 31일 11억5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보다 5500만원 올랐다. 같은 나성동 '나릿재마을1단지'는 지난달 29일 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7750만원 높였다.

지방에서도 최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랐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롯데1단지' 전용 약 73㎡는 지난달 19일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보다 6500만원 올랐고, 진주시 충무공동 '진주혁신도시중흥에스-클래스센트럴시티' 전용 약 109㎡는 지난달 15일 7억2000만원에 손바뀜해 기존 최고가를 3800만원 경신했다.

/이현진 기자 lhj@

〉〉 1면 '민주당 4년만에 상·하원'서 계속

'생활비·부패' 표심 좌우
트럼프 "민주당과 협력"

"이란 전쟁이 패배에 일부 영향"

캔자스에서 민주당 후보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승리한 것은 1932년 이후 처음이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은 공화당 우세 지역을 파고들었다. 공화당이 보유한 아이오와주 하원 4석 가운데 3석을 가져왔다.

인디애나주 5선거구에선 민주당 J.D. 포드 후보가 공화당 현역 빅토리아 스파츠 의원을 꺾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약 17%포인트 차로 이겼던 곳이다.

이번 선거에서 조지아주의 케이샤 랜스 보팀스는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로, 뉴햄프셔주의 크리스 파파스는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미국 최초의 남성 연방 상원의원으로, 미네소타주의 페기 플래너건은 미국 최초의 원주민 여성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AP 유권자 조사에서는 응답자 약 절반이 생활비와 정부 부패 문제를 각각 의회 선거에서 표를 결정한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이 패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민주당은 하원에서 예산 심사와 행정부 감독을 주도하고, 상원에서 각료와 연방 판사 등 대통령 지명자의 인준을 좌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예산과 주요 법안을 처리하려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양원과 협상해야 한다.

/김주형 기자 gh471@

美 민주당 의회 장악 호재… 韓 반도체 투자 압박 지속될 듯

정치 교착에 신규 규제·증세 제동
외국기업 투자 합의 검토 강화 우려
데이터센터 규제에 신규 수요 변수
AI 투자 급랭 땐 반도체 업황 타격
美 금리안정 시 아시아 자금 유입 기대


3일(현지시간) 애틀랜타에서 열린 선거의 밤 행사에서 조지아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 키샤 랜스 보텀스가 발언하고 있다. 키샤 랜스 보텀스는 이날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지사에 당선된 흑인 여성이 됐다. /뉴시스

"미국 중간 선거 이후 의회와 행정부의 교착상태가 새로운 규제와 증세를 제한해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와 대미 투자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

톰 오를릭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 '2026 미국 중간선거 및 거시 전망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 다수당 지위도 확보했다. 야당의 상·하원 동시 탈환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원에서 과반인 51석을 확보했다. 하원은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CNN과 NBC가 민주당의 과반 확보를 예측했다.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변수… 기존 주문보다 신규 수요 주목

오를릭 수석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줄 변수로 미국 주 정부의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를 꼽았다. 데이터센터 가동에 따른 전기·수도 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건설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지사들이 건설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위험은 한국 반도체 업계의 기존 주문보다 향후 주문과 수익성에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질의응답에 참여한 권효성 블룸버그 박사는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이 어려워지더라도 이미 건설 중인 사업까지 영향을 받기는 쉽지 않다며 기존 투자는 비교적 견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를릭 수석도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관련 자본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AI 투자 열기가 급격히 식는 경우에는 한국 경제의 충격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주가가 20% 하락하고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 자본지출이 1년간 중단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한국과 대만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를릭 수석은 "AI 붐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한국과 대만이 그 붐이 불황으로 바뀌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합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에 집중하면서 미국 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취득과 외국 기업의 투자 합의를 엄격히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간선거 결과가 더 강력한 관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박사도 미국이 무역정책을 추가로 강화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대만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내 투자 확대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중심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도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AI 자산이 美 금리 좌우… 금리 안정 땐 자금 유입 가능성

오를릭 수석은 한국 증시의 급격한 조정에 레버리지 문제와 AI 투자에 대한 시각 변화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상반기 수익을 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부 자금을 미국으로 회수한 점도 하반기 한국 시장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과 달러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는 이란 전쟁과 AI 관련 자산 가격을 제시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로 상승하고 AI 관련 자산 가격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 연준이 오는 12월과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유가가 배럴당 60~70달러로 내려가고 AI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는 은퇴 인구 증가와 미국으로 유입되는 저축 규모 감소가 높은 금리 수준을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했다.

권 박사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한국 장기금리도 영향을 받겠지만, 한국의 명목성장률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재평가로 상승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관련 투자 흐름이 이어지고 미국 금리가 추가로 오르지 않으면 아시아로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美 재정 확대 제동에 국채금리 안정… 코스피 상승 기대

대신證, 국채금리 5~10bp 하락 전망
코스피 저평가·실적 개선 매력 부각
4분기 코스피 5200~6700선 제시
뉴욕 증시 상승 기대 속 중동전쟁 변수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 의회 권력 재편에 따른 재정정책 변화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스윕(Blue Sweep)' 성과를 거두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규모 감세(재정 3.0)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레드스윕(공화당 압승)' 시나리오 속 국채 발행 폭증 및 재정적자 심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도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탈환을 넘어 상원 다수당까지 차지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 '발작'을 일으키며 국내 및 글로벌 증시를 뒤흔든 미국 국채 금리로 향한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의 양원 장악이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기간프리미엄의 하향 안정세(-5~-10bp 내외)를 유도할 것으로 진단했다. 과도한 국채 공급 부담이 줄어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독립성이 상원의 인사 인준권을 통해 방어되면서, 국채 공급 부담과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면에서는 블루스윕만으로 미국 국채 발행 부담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국가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20%를 넘어선 상황인 만큼, 재정지출을 일부 줄이더라도 막대한 이자 비용 등으로 인해 국채 발행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블루스윕 상황에서도 재정적자 축소 폭은 GDP 대비 약 1%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봤다.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는 미국 중간선거이후 1년 동안 9번 중 6번 상승세를 보여왔다. 다만 미국 의회 구도보다는 국내 이익 사이클이 성과를 주도했다는 변수가 존재했고, 올해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소득 증가와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상대적 안전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7년 예상 주당순이익(EPS)이 34% 증가하고 주가수익비율(PER)은 4.2배 수준에 불과해 '저평가와 이익 증가'라는 강력한 조합을 갖추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본격적인 증시 재평가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4분기 코스피 전망치는 5200에서 6700포인트로 제시했다.

뉴욕 증시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1950년 이후 S&P500지수는 19번 선거가 끝난 뒤 모두 상승했으며, 평균 수익률은 약 15%를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UBS도 계절적 특성, 헤지펀드의 낮은 주식 보유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중간선거 이후 미국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조정 국면이 마무리되면서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다만 에버코어ISI는 민주당의 양원 장악에 선거 결과를 둘러싼 분쟁과 이란 군사작전 확대까지 겹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S&P500지수가 연말 68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중동전쟁은 변수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쟁 격화 혹은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중단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미 관계 변수… 청와대, 통상·안보 대응 고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 변화 분석 지시
트럼프 관세 기조 유지 가능성 여전
쿠팡·빅테크 현안 등 美 압박 우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을 확보해 압승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청와대도 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안보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에 제약이 커질 수 있어, 대비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참모진에게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안보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 다수당을 탈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미국 관세 정책과 한미 안보협의 등에 미칠 영향도 변동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 의회 권력 지형이 바뀌더라도 한미 간 해결해야 할 통상·경제 현안이 많다. 대미(對美)투자 1호 프로젝트는 합의했지만, 알래스카 LNG사업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한미 간 불편한 기류가 흘렀다.

쿠팡 사태 등 미국은 기업 현안에서도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한미 간) 쿠팡도 있고, 그 외에 구글이나 애플 등 여러 회사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문제들은 미국이 의회 측을 통해 압박을 가해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려했다.

하지만 관세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관세 철회를 위한 법을 통과시켜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CBS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축하를 전하며, 국익을 위해 여러분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나의 (중간선거 결과) 메시지"라면서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법안들을 보내올 것이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만큼 한국의 대미투자 부담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민주당이 한미 무역·투자 합의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투자 자금의 집행 과정도 감시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우리 측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앞세우기 용이한 환경이 될 수 있다. 큰 영향을 받는 쪽은 안보분야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syj@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타고 2GW급 HVDC 국산화 속도

〈초고압직류송전〉

효성중공업 직원이 고객들에게 HVDC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효성중공업

⑫ 효성중공업

HYOSUNG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전력 수요 폭발 예상
대용량 전력 전송 HVDC 기술 중요성
2030년 준공 대상 송전망 물량 70% 미착공

한전 추진 'HVDC 국산화·실증사업' 참여
내년까지 2GW급 기술개발·시스템 설계
창원 HVDC 변압기 전용공장도 건설 중

컨버터 밸브 등 기자재 성능·신뢰성 검증과
주민 수용성 확보·인허가 절차 등 '과제'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전력망 확충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호남권을 비롯한 주요 산업 거점에서 신규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용량 전력을 장거리로 전송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핵심설비 국산화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서남권과 용인 지역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포함됐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예상 전력 수요는 6.3GW(기가와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15GW에 달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규모도 18.4GW로 제시됐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시설이다. 발전설비를 확보하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산업시설까지 전달할 송전망이 제때 구축되지 않으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주요 전력 수요처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HVDC 기술을 활용해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신규 전력 수요가 예상되면서 송전망 확충과 관련 설비의 기술 확보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송전망 확충 필요성에 HVDC 국산화 중요성 확대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송전망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10월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개최한 '전력망 병목, 에너지 지정학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2030년 준공 대상 송전망 물량의 약 70%가 미착공 상태라고 지적했다. 2038년까지 필요한 송전선로를 건설하려면 현재보다 6배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의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는 전력과 송전망 병목 해소에 달려 있다"며 전력망 비상 실행 계획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 주민 수용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전망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과제다. 권효재 COR에너지인사이트 대표가 같은 날 세미나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송전선로 건설에는 평균 13년이 걸린다. 반면 데이터센터 등은 3~4년 안에 전력 공급이 필요해 산업시설의 전력 수요 발생 시점과 송전망 구축 일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용량 전력 전송에 활용되는 HVDC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HVDC는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해 장거리로 전송한 뒤 수요지에서 다시 교류로 바꾸는 기술이다. 장거리 대용량 송전에 활용할 수 있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같은 전력망 사업의 주요 기술로 꼽힌다.

대규모 HVDC 송전망을 구축하려면 전력 변환과 제어를 담당하는 핵심설비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대용량 전압형 HVDC 분야는 해외 주요 기업들이 관련 기술과 공급 경험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핵심 기자재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2GW급 전압형 HVDC 핵심 기자재 국산화·실증사업에 참여해 전력 변환과 제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대용량 송전망 구축에 필요한 핵심설비의 국내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 효성중공업, 200MW급 실증 경험 바탕으로 2GW급 HVDC 국산화 추진

효성중공업은 지난 9월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대용량 전압형 HVDC 국산화 및 실증사업'의 밸브·제어기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용량 HVDC 핵심설비의 국내 기술을 확보하고 실제 전력망에서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된다.

효성중공업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해안 HVDC 국산화 추진현황 점검회'에서 2GW급 전압형 HVDC 핵심기술 개발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효성중공업은 2017년부터 전압형 HVDC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2018년 200MW(메가와트)급 전압형 HVDC 기술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2024년에는 경기도 양주변전소에 200MW급 전압형 HVDC 변환설비를 구축하며 국내 전력망 적용 경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200MW급보다 송전 용량을 10배 확대한 2GW급 HVDC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GW급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핵심 알고리즘과 컨버터 밸브의 주요 부품인 서브모듈 개발을 마쳤으며 525kV(킬로볼트)급 컨버터 밸브를 개발하고 있다. 실제 전력망 적용에 앞서 제어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시험환경도 구축했다.

효성중공업은 2027년까지 HVDC 핵심기술 개발과 시스템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주요 기자재 제작과 성능시험을 거쳐 2030년까지 서해안 HVDC 구축을 위한 현장 설치와 시운전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시설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200MW급 전압형 HVDC 기술개발에 약 1000억원을 투입했다. 2025년 7월에는 HVDC 변압기 공장 신축과 컨버터 시스템 제작시설 확충, 연구개발 등에 총 33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 창원에 건설 중인 HVDC 변압기 전용공장은 202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이를 통해 대용량 HVDC 설비 생산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대용량 HVDC 핵심설비의 국산화가 완료되면 국내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기자재의 조달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송전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이후 성능시험과 현장 실증을 거쳐야 한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2027년까지 HVDC 변압기 공장 완공과 기술개발을 완료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안정적인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용량 설비 실증·송전망 적기 구축 과제

효성중공업이 참여한 HVDC 국산화 사업의 주요 과제는 개발 중인 기술을 실제 대용량 송전망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 200MW급 실증 경험을 2GW급 설비로 확대하려면 컨버터 밸브와 제어시스템 등 주요 기자재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성능시험과 현장 실증도 필요하다.

기술개발과 송전망 건설 일정을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효성중공업은 2027년 핵심기술 개발 완료와 2030년 현장 설치·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기술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면 실제 전력망 적용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송전망 건설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절차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 협의와 부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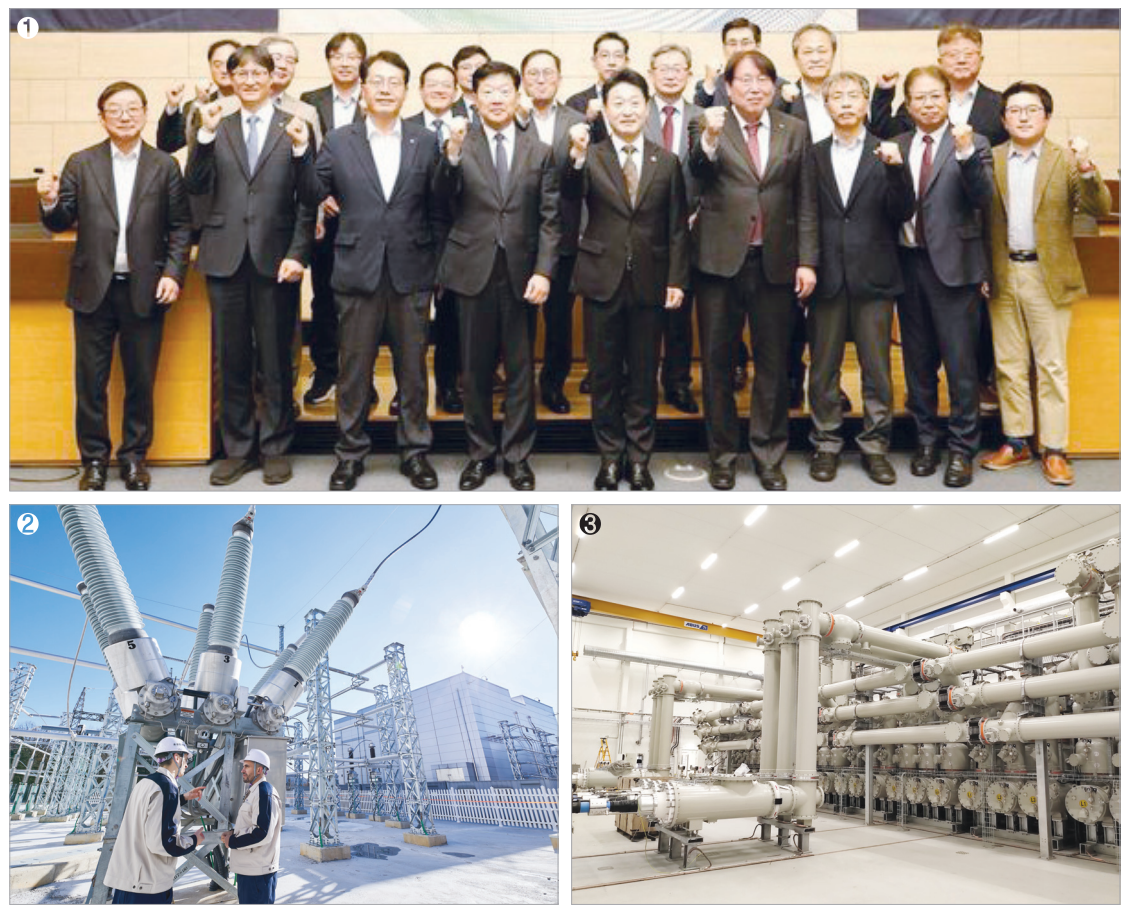
전력 수요에 맞춘 단계적인 공급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시설의 투자 일정에 따라 실제 전력 공급 시점과 필요한 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AI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반도체 생산과 IT 관련 산업을 확대하려면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토지 소유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전력망을 확충하려면 상당한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향후 전력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와 투자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전력기기 업계의 역할과 주민 수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제일 중요한 게 전력과 용수"라며 "전력이 생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전력이 이동하는 경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력기기 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게 주민 수용성 문제"라며 "송전망 구축에 반대가 발생하면 지하로 매설하는 등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 미국에서도 환경 문제나 전기요금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해외가 주춤할 때 우리나라가 치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❶ 효성중공업이 정부·산업계·학계 및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해안 2기가와트(GW)급 초고압직류송전(HVDC) 국산화 점검회를 가졌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왼쪽에서 네 번째),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❷ 효성중공업이 한국전력 양주 변전소에 공급한 200MW급 HVDC 시스템. ❸ 효성중공업의 420kV 초고압차단기. /효성중공업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행복이란 건
누구에게나
당아야 하잖아요?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로

온 국민의 내일을 밝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누구나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국민 행복시대

국민 누구나 행복에 가까이

KB국민은행이 함께 합니다

Korea Better
KB국민은행



국민의 오늘이 행복하게

KB마음가게 **요식업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맞춤형 홍보**
KB희망금융센터 **신용상담·채무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청년들의 도전이 행복하게

KB굿잡 취업 박람회 **청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KB인재양성 **전국 청년 AI 인재양성 프로그램**



아이들의 내일이 행복하게

KB작은도서관 **문화소외지역에 도서관 건립**
KB온종일 돌봄 **전국 아동 방과후·야간 돌봄 제공**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KB금융그룹의 포용금융 프로젝트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 계약 체결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892호(2026.02.27.) 유효기간 2026.02.27.~2027.02.26.까지

KB 국민은행

모두의 '성장'이냐 '빚'이냐… 820조 예산안 놓고 여야 대립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민주, 양극화 해소 위한 투자 강조
정부 "향후 2~3년 적극적 투자 필요"
국힘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정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처 수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열린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로 이어질 동력을 확보하는 안이라는 민주당과,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물려주는 안이라는 여야 주장이 엇갈렸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한민국 거시경제 회복을 '위대한 대(大)반등'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성장이 세수를 늘리고, 늘어난 세수가 미래 성장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고통받았는데, 이 늪에서 벗어나 좋은 조건을 바탕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고인 12.8%로 책정한 것은 고도성장과 K-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모두의 성장을 이루자는 동력을 재정에서 뒷받침하자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기업의 성장 관련 부분은 좋은 상황이나, 소상공인이나 개인의 성장 관련 부분은 소비가 진작돼야 해서 재정을 확장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산업, 연구·개발, K-컬처 분야에 예산액 편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국가 미래 산업을 선점해야 하는 경쟁 시대에서 초과 세수로 인한 투자 여력이 있을 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 체질, 규모 확장 등 개선이 어렵다고 본다"며 "향후 2~3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세수 결손 사태로 민생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국회를 우회해 기금을 썼다며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안정화 장치'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봤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수는 변동성이 커서 있는대로 쓰다보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기 어렵다"며 "그래서 만든 것이 미래대응기금이고 IMF(국제통화기금)도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160조원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정부는 나라빚은 106조원을 더 내겠다고 한다"며 "162조원 규모 미래펀탄기금을 쌓아 만들어서 104조원을 쌓아두겠다고 한다. 국민 명의의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 짜리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나 의원은 "나라 빚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의 빚인가. 우리 아이들의 몫 아닌가"라며 "이자만 한 해에 40조원이다. 총선용 현금 살포,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 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 학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두의 성장을 말씀하셨는데, 모두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빚이 되는 그런 나라 살림을 편성했다"며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렇게 재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대규모 세수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는 빚을 갚고, 불황일 때는 돈을 써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이 미래를 위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이 아니라 한 마디로 살포해서 없어지는 돈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총리는 "호황일 때 빚을 모두 갚느냐가 정답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이견도 있고, 생각도 다르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민석 사과 놓고 민주당 계파 갈등 재점화

친청계 "공개 사과하고 책임져야"
박성준 대변인 "질서있게 문제 처리"

전날(3일) 자신이 전당대회 전후 제기한 '반명(反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제3자 비밀연합'의 근거가 없었다고 말하며 의원들에게 사과한 김민석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지지자를 대상으로 추가 사과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에게 모욕 받고 상처 받은 당원과 지지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책임을 지라며 공개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맨 마지막에 발언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대로 당 내 종교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가겠다"고만 말했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는 박선원 당원 조사 TF(태스크포스)단장의 신천지 교인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 조사 결과 발표 전 의원들에게 사과하며 '조사 결과 3자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다. 본의 아니게 피해 입은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청계 최고위원은 전날 김민석 대표의 사과를 언급하며 당원과 지지자를 향한 공개 사과와 정당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원래 3자 비밀연합이 없었는데, 무슨 증거가 나오나"라며 "근거 없이 몰아세워 당원들이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견뎌야 했고 당원 사이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과 상처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스스로 제기한 신천지 관련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당원에게 밝혀야 한다"며 "낙인 찍히고 당원과 정청래 전 대표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법 52조에 따르면 당 대표 경선 등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근거 없는 3자 비밀연합 의혹이 어떤 목적과 근거를 갖고 왜 공표했는지 정당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당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친청계를 향해 '당 대표를 흔들지 마라'고 주장하는 친명(친이재명)계를 향해 가해 행위를 멈춰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의 전날 사과 외에 김 대표가 책임을 질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시정연설 이후 집권여당으로 책임 있게 나가야 하는건데, 당 내 문제가 확전돼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당은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 보고 관련해선,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 예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발표
"925조 예산, 전례없는 기형적 규모"
미래대응기금 104조 전액 국채 상환"

국민의힘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철저한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과 현금성 지원 사업 등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한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부는 대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고스란히 고려하면 내년 실제 예산안은 올해보다 무려 27.1%, 금액으로는 197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925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초대형을 넘어서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규모"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한쪽에서는 국가채무를 107조원이나 늘려놓았다"며 "다른 한쪽에서는 국회 통제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한다고 국채 발행, 세수가 안 좋아도 국채 발행, 세수가 좋아도 국채 발행"이라며 "도대체 국채를 언제 갚아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재옥 의원은 "정부는 배분될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가로챘으나,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고작 15조3000억원에 불과해 15조2000억원이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 시도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광주·전남에만 통합 명목으로 3조5000억원을 몰아줬다"며 "30조5000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공정하게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특정 세력에 편중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삭감 대상으로는 ▲협동조합사업 ▲사회연대경제사업 ▲기본사회위원회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사업 ▲프론티어급(세계 최고 수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등을 꼽았다.

박수영 의원은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 준비가 미흡한데도 규모를 늘린 예산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등 각종 펀드 ▲전기차 보급사업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사업 ▲석유 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 등을 언급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특검법' 상정

野 "李 대통령 구하기 법안"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된 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전날(3일)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추진 및 처리에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과 자신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특검법'으로 부르는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조작기소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뤄진 수사권·공소권 오·남용행위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게 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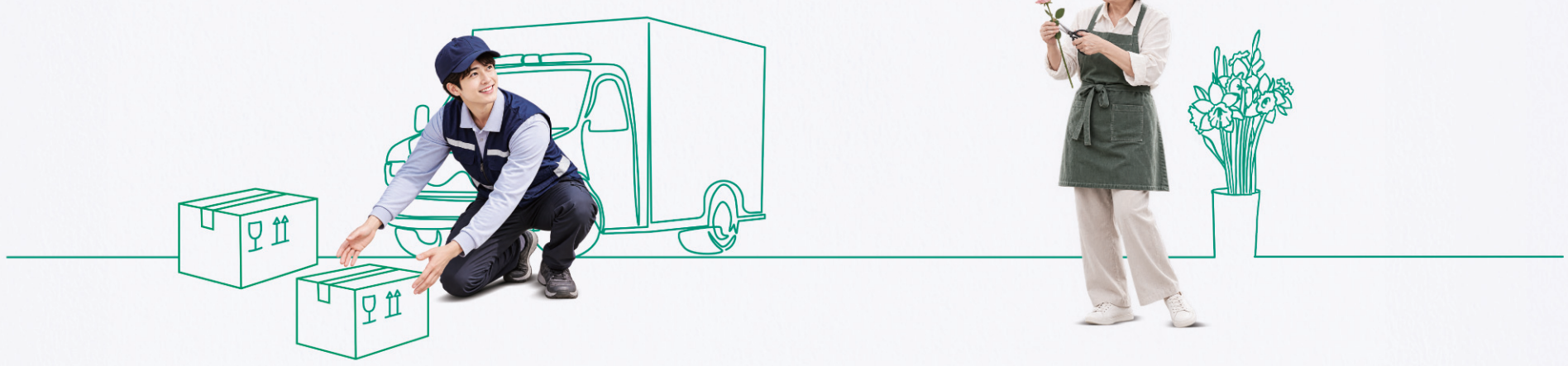
수사 범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사업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야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공소취소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특검이 아니다. 국민 혈세로 차려주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설 탐정소, 개인 로펌"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기소 자체를 없애주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소위는 오후 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의 5일 본회의 처리를 노리는 민주당은 곧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AI 금융’ 시대 성큼… 보안 강화·소비자 보호 제도정비 박차

은행·증권사, AI 고객서비스 확대
신청서·약관 등 AI 업무비중 늘려
AI 해킹 등 금융권 위험요소 발생
금융위, 급증 해킹위협에 대응
규율마련, 보안목적 AI활용 지원



AI가 생성한 이미지. ‘AI 금융’이 가시권으로 진입했다. 해킹·소비자보호 등이 위협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하며 ‘AI 금융’이 가시권으로 진입하면서 AI 기반 해킹, 소비자보호 공백 등 새로운 위협요소도 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AI 활용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규율을 확보하고, 차세대 보안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금융권, AI 활용 확대

최근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은 AI 고객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 및 증권사들은 자연어 기반의 AI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맞춤형 AI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투자 성향 분석 및 자동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도 보편화됐다. 일부 은행들은 AI가 대출심사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전용 대출 상품도 출시해 공급 중이다.

내부 업무에서도 AI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그간 임직원들이 직접 처리했던 신청서, 약관 등 비정형 금융 문서의 자동 데이터화를 통해 반복 업무를 효율화했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상거래탐지(FDS) 및 리스크 관리에도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해 감사 효율을 높였다. 보험이나 회계 분야에서도 AI 기반의 데이터 교차 검증을 통해 업무 효율을 개선하고 있다.

기존 금융 서비스 전반에 AI의 역할이 확대하면서 주요 금융기관들은 AI 기반 투자를 늘리고 있다. 망분리 규제로 외부 모델 활용이 어려운 만큼 자체적인 AI 모델 개발에 투자 중이며, 학습 효율 개선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확대와 AI 전문인력 육성에도 적극 투자한다.

금융권의 AI 활용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엔비디아(NVIDIA)가 올 상반기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AI 도구를 활용하는 임직원 비중은 2025년 초 30%에서 2026년 초 62%까지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금융기관 경영진의 73%는 AI의 활용이 미래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I, 위협요소로 부상

금융권에서 AI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하고 있지만, AI는 금융권의 중대한 위협요소로도 부상했다. 최근 고성능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 및 금융 사기가 빈발하고 있어서다.

최근 국내에서는 오픈소스 AI 서비스 ‘아르텍스(ARTEX)’와 여러 AI 모델을 연계해 금융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하는 해킹 시도가 수 차례 발생했다.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1·2금융권 금융기관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다수 발생했으며,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고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해외 금융권에서도 AI 기반의 위협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2025년에는 미국과 주요 동맹국의 금융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자동화된 해킹 공격을 받은 바 있고, 올해 2월에도 이탈리아에서 AI 기반의 음성 생성 서비스를 활용해 1400억원이 넘는 자금을 가로채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AI 활용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불분명과 소비자피해 대책 부재 등 소비자보호 공백도 주요한 쟁점이다. 현행법은 AI를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사결정 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어, AI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금융당국, 제도 개선 속도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앞서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는 지난달 초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는 금융권의 ‘에이전틱 AI’ 도입과 관련해 권한위임과 책임소재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의 중간보고는 이달, 최종보고는 12월로 예정됐다.

‘에이전틱 AI’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금융거래를 대신 실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은행·증권·보험 등 각 업권에서는 AI 기반의 상품추천이나 투자 위임 서비스 등을 출시하면서 에이전틱 AI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에이전틱 AI 도입 시 법률·기술적 쟁점을 검토해, 차등적인 규율원칙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AI에 위임 가능한 권한의 범위나 위임 형태도 검토하고, 금소법상 판매원칙과 소비자보호 규율을 재편한다는 목표다.

급증하는 AI 기반의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보안목적 AI 활용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보안목적의 AI활용을 위한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의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의 망분리 원칙에 따라 AI 기반 서비스를 내부 업무망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보안 취약점 탐지나 개선 등 목적으로 AI나 SaaS(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활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AI에 기반한 보안 위협의 특징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의 보안목적 AI 활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상시 제도화한다는 목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라며 “망분리 규제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가계대출 한 달 만에 반등… 5대 은행서 2.8조 증가

주담대·신용대출 나란히 증가세
고금리 기조, 차주 상환부담 증가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지난달 감소했던 가계대출 잔액이 다시 확대됐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매입과 주식 투자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83조6057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7717억원 증가했다.

지난 9월 가계대출 잔액이 1조2852억원 감소하며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나란히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23조988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005억원 늘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택 매매와 신규 입주에 따른 대출 수요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활용되는 집단대출도 증가했다. 지난달 말 집단대출 잔액은 150조1397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876억원 확대됐다. 주택시장 내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 역시 감소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8990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6687억원 증가했다. 지난 8월 1815억원, 9월 1조3415억원 각각 감소했던 신용대출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투자자들의 자금 수요가 일부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신용대출로 조달하려는 수요도 증가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대출이 다시 확대되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가 지속될 경우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연 6% 중반에 달하는 만큼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한 차주들은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38~6.38%, 고정금리는 연 4.55~6.50%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변동형이 연 5.15~6.45%, 고정형이 연 5.26~6.44%로 집계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


(왼쪽부터)김영록 우리카드 기업솔루션팀장, 민복기 우리카드 기업영업본부장, 이기문 모노플로우 대표이사, 유인지 코리아엑스퍼트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종로구 우리카드 본사에서 ‘기업고객 확대 및 솔루션 보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카드

우리카드
기업 금융·AI협력 MOU
모노플로우·코리아엑스퍼트 협력

우리카드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모노플로우, 코리아엑스퍼트와 ‘기업고객 확대 및 솔루션 보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사가 보유한 고객 기반과 사업 역량을 연계해 기업시장 내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업에 금융·인공지능(AI) 솔루션과 보안·거버넌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는 기업카드 모집 채널을 다변화하고 기업영업 접점을 확대한다. 모노플로우와 코리아엑스퍼트는 우리카드에 등록된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용 AI 플랫폼과 보안·거버넌스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모노플로우는 기업용 AI 플랫폼 ‘모노GPT’ 운영사다. 코리아엑스퍼트는 인공지능 전환(AX) 거버넌스 전문기업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KB국민은행, 대부업체 성실상환자 이자지원

100억 규모 ‘크레딧 빌드업’ 실시

KB국민은행은 총 100억원 규모의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 Up)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용도가 낮아 제1·2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제도권 금융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KB국민은행은 이자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에 100억원을 기부한다.

지원 대상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중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의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다.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중이며, 소득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간 정상 납부한 이자의 50%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및 KB금융공익재단의 온라인 금융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대부업체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단순한 금융비용 경감을 넘어 고객이 자신의 신용과 재무상태를 이해하고 올바른 금융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 신용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크레딧 빌드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사회연대은행이 전담한다. 참여 대부업체와 협력해 대상자 선정, 지원 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등 프로그램 전 과정을 수행한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프로그램 재원과 참여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 등을 감안할 때, 약 1만명(대출 총액 약 100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상환 부담과 생활비 부담이 겹쳐 다시 급전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을 끊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고, 이자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K-전력기기업체, HVDC 등 차세대 전력망 기술 대거 선봬

〈초고압직류송전〉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

효성중공업 HVDC 시스템 전면에
LS전선 해저 케이블 경쟁력 뽐내
대한전선 송전 케이블 신제품 공개



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2026'가 개막했다. (왼쪽부터) 효성중공업 부스, LS전선·LS마린솔루션 부스, 대한전선 부스. /각 사

효성중공업과 LS전선, 대한전선 등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이 국내 최대 전력·에너지 전시회에서 차세대 전력망 기술을 대거 선보이며 미래 전력망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을 나란히 앞세운 가운데 효성중공업은 반도체 변압기(SST)를, LS전선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인프라를, 대한전선은 345kV급 대용량 송전 케이블을 함께 공개해 차별화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LS전선·LS마린솔루션, 대한전선은 이날부터 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6'에 참가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약 200개 기업이 참여해 전력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중공업은 지난 9월 한국전력의 대용량 전압형 HVDC 국산화 및 실증사업에 선정된 밸브·제어기를 포함한 HVDC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압형 HVDC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안 HVDC 구축 사업에서 국산화를 이끌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와 함께 전력망 안정화 설비인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STATCOM)와 SST, 인공지능(AI)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플랫폼 아머플러스(ARMOUR+)도 소개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SST, HVDC 등 전력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전력망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은 해저 HVDC 케이블 분야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두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저·지중 HVDC 케이블 상용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LS전선이 케이블을 설계·제조하고 LS마린솔루션이 해저 시공과 유지보수를 맡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장기 신뢰성 시험을 통과한 525kV·80℃급 HVDC 해저케이블 기술을, LS마린솔루션은 해저 지형 분석부터 케이블 포설·보호, 점검·복구까지 시공 전 과정의 기술을 각각 소개했다.

이외에도 LS전선은 AI 데이터센터용 전력·통신 인프라도 전시했다. 대용량 전력 공급을 위한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과 버스덕트, 통신 케이블 등이다. 특히 LS전선 계열사들은 이미 해외 빅테크 데이터센터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가온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미국과 동남아 빅테크 데이터센터에 버스덕트 등을, LS머트리얼즈는 미국 수소연료전지 기업에 AI 데이터센터용 울트라캐패시터(UC)를 공급 중이다. LS전선 관계자는 "계열사와 협력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생산부터 시공까지 직접 수행하는 턴키 역량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부스 전면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 적용 가능한 525kV급 HVDC 해저케이블을 배치하고 케이블 포설선 '팔로스(PALOS)'호와 '대한커넥터(Taihan Connector)'호 모형도 함께 전시했다.

또한 대용량 송전 케이블 신제품도 처음 내놨다. 한국전력과 공동 개발 중인 345kV급 케이블로, 기존 345kV급 초고압 케이블의 최대 도체 단면적을 2500㎟에서 3200㎟로 키워 송전 용량을 늘렸다. 대한전선은 이 케이블이 전력망 구축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 구축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조현상 "韓 산업계 목소리, 국제정책 논의 반영"

〈HS효성 부회장〉

한국 OECD 가입 30주년 만찬 축사
"BIAC 이사로서 현장 가교역할 강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국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제 정책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HS효성은 조 부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프란티셰크 루지치카 OECD 사무차장과 26개국 주한 외교사절, 국내 주요 기업인 등 8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 부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스스로 뜻을 세우고 설 수 있는 진정한 '이립(而立)'에 이르렀다"며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 /HS효성

"OECD의 기업 거버넌스 기준은 한국 기업의 발전 및 글로벌화에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OECD가 추구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HS효성 역시 모빌리티, AI, 에너지, 반도체,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통상규범과 공급망 변화의 영향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BIAC는 이러한 산업계의 경험과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BIAC 한국이사로서 한국 산업계의 의견을 OECD 정책 논의에 반영하고, OECD의 정책적 성과를 국내 기업 현장에 확산하는 가교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2021년 OECD의 공식 기업 자문기구인 BIAC 이사로 선임돼 한국 경제계의 의견을 국제사회에 전달해 왔다. 이번 행보는 부친인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민간외교 활동을 계승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제철, 생성형 AI 플랫폼 'Steel-X' 오픈

검색·분석 등 전사적 AI 활용

현대제철이 사내 정보와 업무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사적인 AI 활용 확대에 나선다.

현대제철은 사내 문서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검색·분석 등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Steel-X'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Steel-X는 여러 시스템과 부서에 분산된 사내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 등 반복 업무를 줄이기 위해 개발됐다. 현대제철은 현대오토에버와 기획 단계부터 협업해 실제 업무 환경과 임직원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기능은 사내 지식 자산화, 멀티 AI 통합 환경, 임직원 AI 플레이그라운드, 업무시스템·데이터 연계 등 네 가지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Teams)와 사내 업무시스템 등에 분산된 문서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자동 변환해 통합 관리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내 문서 통합 검색과 질의응답,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

임직원은 업무 목적에 따라 사내 구축형 AI와 외부 AI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개발 지식 없이도 개인 문서나 팀 폴더를 활용해 업무 전용 지식 챗봇과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개인·조직·전사 단위로 공유할 수 있다.

사내 업무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해 실제 업무 데이터 조회와 분석도 지원한다. 사내 규정과 업무 매뉴얼 검색, 기술 문서 요약, 설비 이력 및 운영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청력체크·케어' 의료기기 허가

내년 초부터 순차 제공 예정

삼성전자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의 청력 검사와 소리 증폭 기능에 대한 국내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즈에 탑재되는 '청력 체크(Hearing Test)'와 '청력 케어(Hearing Aid)'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능은 국내 갤럭시 버즈4 프로와 갤럭시 버즈3 프로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2027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청력 체크는 갤럭시 버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양쪽 귀의 청력 수준을 각각 측정하는 기능이다. 스마트폰 설정의 갤럭시 버즈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임상 수준의 순음 공기전도 청력검사 방식을 적용해 주파수별로 사용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를 측정한다.

검사 결과는 청력도(Audiogram)로 생성되며 보통부터 경미·경도·중도·중고도·고도·고심도까지 7단계로 구분된다. 사용자는 자신의 청력 상태와 함께 이후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도 확인할 수 있다.

청력 케어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잘 듣지 못하는 소리를 개인별 청력 특성에 맞춰 증폭하는 기능이다. 경도에서 중등도 수준의 난청이 의심되는 만 18세 이상 사용자는 청각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청력 상태에 맞게 갤럭시 버즈의 소리를 조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에 호주 국립음향연구소(NAL)가 개발한 보청기 처방 공식 'NAL-NL2'를 적용했다. 청력도를 기반으로 주파수별 적정 증폭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소음 제거와 정면 소리 집중, 배경 소음 억제 기능도 지원한다. 소음 노출 수준과 청력 검사 결과 등 관련 정보는 삼성 헬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한화에어로, 우주발사체 생산기지 구축

율촌산단 '순천사업장' 준공식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발사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우주수송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누리호와 차세대발사체는 물론 자체 개발 발사체까지 한곳에서 제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서 민간 주도의 우주사업 확대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남광주 순천시 율촌산단에서 우주발사체 제조센터인 '순천사업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약 1만8000평 규모로 조성된 순천사업장은 우주발사체 주요 구성품을 통합·조립하는 제조센터다. 내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6호기의 75톤급 엔진과 발사체 1·2·3단 조립, 성능 검증도 이곳에서 진행된다. 앞으로는 차세대발사체와 재사용 기술 시연체, 한화가 자체 개발 중인 발사체 제작도 순천사업장이 맡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메탄엔진과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 핵심 구성품까지 생산해 순천사업장을 민간 우주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키울 방침이다.

김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총괄은 "순천사업장은 대한민국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국내 우주기업들과 함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우주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현대차그룹, '모베드 동맹' 출격… 로봇 생태계 확장 본격화

로보월드서 국내 로봇기업 3곳 협력
순찰·배송·분리수거 로봇 4종 공개
양팔 로봇 결합해 작업 영역 확대
험로 주행·20㎝ 단차 극복 기술 선봬
플랫폼 공유로 로봇 사업화 가속도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로보월드' 가온로보틱스 전시관에서 선보인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의 모습. /현대차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로봇기업과 손잡고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를 활용한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순찰과 배송, 분리수거 등 일상생활 서비스부터 양팔을 활용한 물체 조작, 험로 주행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며 로봇 플랫폼 사업화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그룹은 4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로보월드'에서 가온로보틱스, 위고로보틱스, 로아스 등 국내 로봇기업 3곳과 공동 개발한 모베드 기반 로봇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협력은 로봇 개발에 필요한 주행 플랫폼을 공유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모베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로봇이 공개됐다. 가온로보틱스는 모베드에 순찰·배송·분리수거·세미휴머노이드 모듈을 결합한 로봇 4종을 전시했다. 위고로보틱스는 모베드에 양팔 로봇을 결합한 듀얼암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를 선보였다.

이동하면서 양팔로 물체를 잡고 조작하는 기술로, 단순 이동을 넘어 작업 수행까지 가능한 모바일 로봇의 확장성을 담아냈다. ROS 기반 통합 제어와 인공지능(AI) 학습·추론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로아스는 순찰 서비스 로봇과 함께 모베드의 특수 지형 대응 능력을 공개했다. 좁은 공간에서 360도 회전하고 차체의 좌우·상하 움직임을 활용해 자세를 제어하는 한편, 20㎝ 높이의 단차를 오르내리는 주행 성능을 선보였다.

모베드는 편심 휠 기반의 DnL(Drive-and-Lift) 모듈과 4개의 바퀴에 각각 적용된 인휠 모터를 통해 지형에 따라 차체 높이와 자세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차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은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베드 얼라이언스'도 구축했다. 플랫폼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사의 로봇·서비스 전문성을 결합해 현장 적용과 고객 맞춤형 모듈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로봇 플랫폼을 협력사와 공유하고 각 기업의 전문성과 결합하면 더 다양한 산업과 생활 환경에 맞는 로봇 솔루션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며 "모베드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기술·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로보틱스 생태계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CES에서 처음으로 모베드를 공개했으며 약 3년 만에 양산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6' 현장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 로봇 청소기를 둘러보면서 삼성전자 측에 "모베드와 결합하면 뒤집어지지도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다"며 협업을 제안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술보증기금

소방산업 금융지원 확대
소상공인 상생금융 강화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소방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보는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금융 업무협약'도 맺었다. 4일 기보에 따르면 소방산업기술원과는 소방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산업 분야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에 기술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기존 '안전인프라보증' 지원대상에 소방안전기술 우수기업을 새롭게 추가하고, 보증비율 우대와 보증료 감면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수소트럭에 충전로봇까지"… 미래 수소산업 한눈에

수소엑스포에 12개국 197개사 참가
현대차, 상용차 관제·예방 정비 강화
코오롱, 연료전지 핵심 소재 기술 공개


이종배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의원과 안호영 연구책임의원, 서강현 현대자동차 사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WHE 2026'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승혁 기자

"상용차는 사실 멈추면 안 되고 영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케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HE) 2026'. 서강현 현대자동차 사장은 수소 상용차의 관제 시스템을 설명하며 운행 중단 시간을 줄이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부스의 관제 화면에는 운행 현황과 이상 진단, 정비 예측, 실시간 알림 항목이 나뉘어 있었다.

제5회 수소의 날과 통합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12개국 197개사가 참여했다. 오는 6일까지 수소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기술을 선보인다.

수소전기트럭 옆에서는 자동 충전로봇 'ACR-H' 시연이 진행됐다. 차량 충전구 앞에서 로봇이 커넥터를 연결하는 과정이 펼쳐졌다. 비전 인공지능(AI)으로 차량과 충전구 위치를 인식한 뒤 보호캡을 열고 커넥터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운전자의 조작 부담을 줄이고 24시간 충전소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상용 모빌리티 구역에는 셀과 주요 부품을 개선해 내구성을 높인 연료전지 시스템이 처음 공개됐다. 서 사장은 "수소상용차는 주행거리와 수소 저장 공간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더라도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시 관계자가 가리킨 '블루링크 업타임 케어' 화면에는 차량 운행·진단 정보가 표시됐다. 운행데이터로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예방 정비로 연결해 비가동 시간을 줄이는 시스템이다. 축적된 데이터는 품질과 성능 개선에도 활용된다.

부스 중앙에는 수소 생산시설과 저장·공급 설비, 차량과 철도를 연결한 수소 생태계 모형이 자리했다. 앞쪽의 생산설비를 지나 뒤쪽으로 시선을 옮기자 태양광 발전 시설과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이 이어졌다. 새만금 AI 밸리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과 수소를 도시·산업시설에 공급하는 구상을 담았다.

서 사장은 "수소뿐 아니라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 확산을 위해서도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데이터센터에 가장 먼저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스에는 디 올 뉴 넥쏘용 막가습기와 범용 제품 '에코메이트 H50N·H200N'이 나란히 놓였다. 격자무늬 표면 위로 여러 연결구가 솟아 있었다. 연료전지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장치로, 범용 제품은 비상발전·선박·열차 등에도 적용하기 위해 개발됐다.

앞쪽에는 수전해용·연료전지용 막전극 접합체(MEA)와 고분자전해질막을 전시했다. 투명 덮개 아래 얇은 막이 펼쳐졌고, 옆에는 검은색과 주황색 층을 벌려 놓은 스택 적층 모형이 내부 구조를 드러냈다. 현장 담당자에 따르면 전시 제품은 모두 양산·공급 중이다.

현대차그룹의 차량·운영 기술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소재·부품은 수소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공급망의 각 단계를 보여줬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이바나 제멜코바 수소위원회 최고경영자(CEO)도 한국 공급망의 강점을 짚었다. /이승혁 기자 sh95@

CJ대한통운

게임 속 등장한 택배차량
'테일즈런너' 협업 눈길

CJ대한통운이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와 함께 통합 브랜드 '오네'를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아이템 5종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Z세대와의 접점을 넓혀갈 예정이다. 4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번 협업은 일상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CJ대한통운의 배송차량과 배송상자 등을 게임 속 아이템으로 구현해 브랜드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새로 선보이는 콜라보 아이템은 CJ대한통운 조끼·배송차량·배송상자 등 물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게임 속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다양한 미션으로 구성된 5개의 퀘스트를 완료하고 콜라보 아이템 5종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다. 콜라보 아이템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선보인다.

/김승호 기자

지역서 키운 브랜드, 세계로 뻗는다… 제주서 첫 '로컬창업 페스타'

중기부, 로컬기업 투자·수출 지원
전국 로컬기업 140곳 한자리에
국내외 투자사·해외 바이어 참여

로컬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수출 등의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처음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주 쉐라톤호텔에서 '1회 로컬창업 페스타 in 제주' 개막식을 열고 오는 6일까지 제주시 원도심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흘간의 일정 동안 전국 각지 로컬기업 약 140개를 비롯해 국내 투자사 8개사, 해외 투자사 3개사, 대형 브랜드·유통사 5개사, 해외 바이어 13개사, 해외 진출 지원기관 1개 기관 등이 참여한다.

행사에서 이들은 투자·판로·수출 기회를 함께 모색한다. 창업 초기 기업엔 선배 기업·전문가와 교류할 기회를, 성장 기업엔 투자 연계 기회를, 판로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대형 유통사·해외 바이어와 협업할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에서 세계로, 지역의 가치를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행사에선 그동안 중기부의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매출·수출 등 성장한 로컬기업의 성과도 공유한다. 지난 2023년 이후 립스(LIPS)를 통해 로컬 창업 소상공인 765개사가 총 1227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행사 첫날인 4일엔 로컬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로컬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의 성장 방향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투자사와 로컬기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열렸다. '로컬 투자 로드쇼'에선 와이앤아처의 리버스피칭과 로컬기업 6개사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고, 후속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 립스(LIPS)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투표로 선정된 '로컬스타 TOP3'를 공개해 전국 우수 로컬기업의 성장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5일에는 기업의 성장이 개별 사업체를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6일에는 국내외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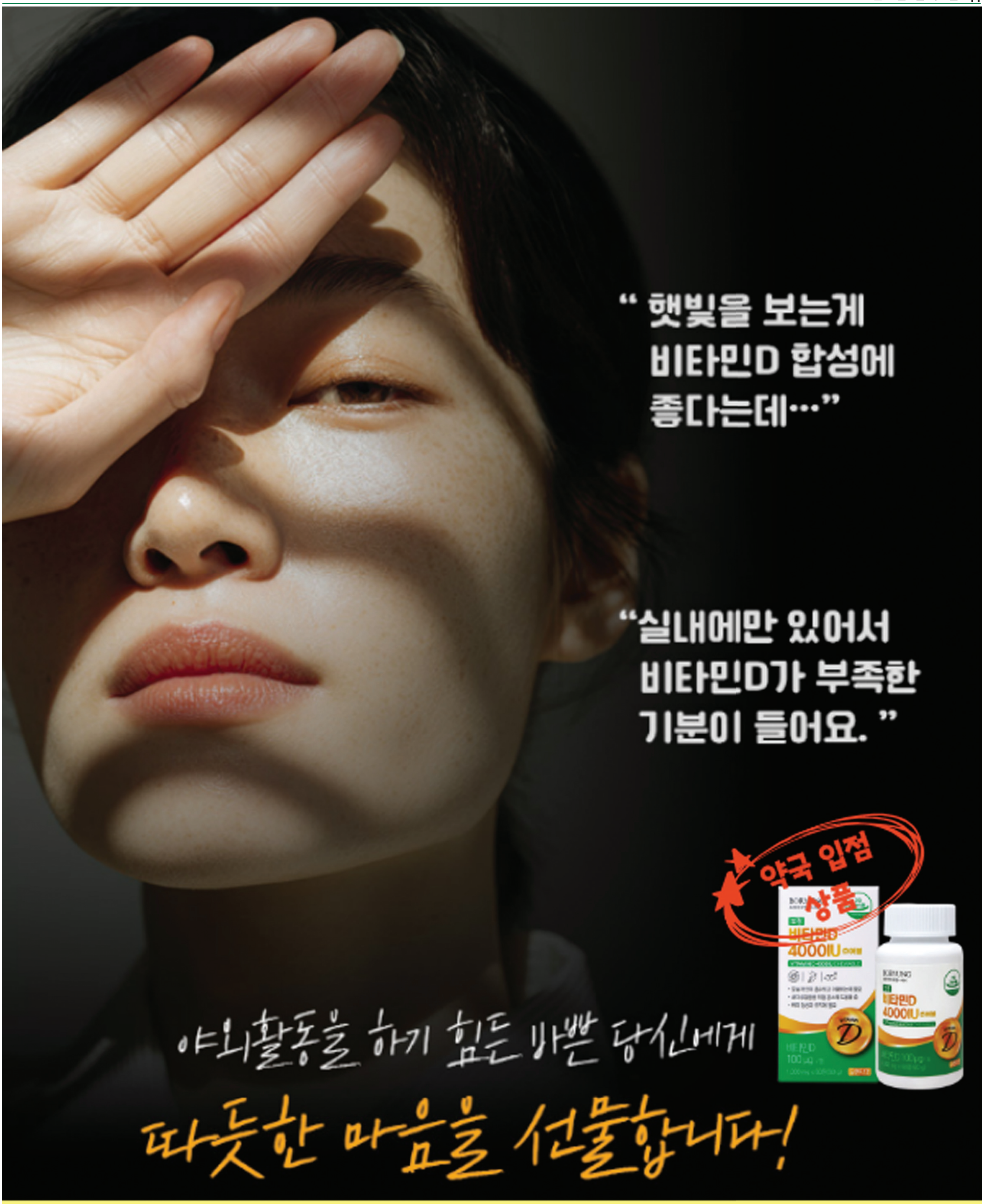
/김승호 기자 bada@

한국앤컴퍼니그룹

배터리·타이어 3사 협력
美 자동차 부품시장 공략

한국앤컴퍼니그룹이 배터리·열관리·타이어 3사의 기술과 고객망을 결집해 약 6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자동차 애프터마켓 공략을 강화한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3일부터 5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 'AAPEX 2026'에 한국앤컴퍼니·한온시스템·한국타이어가 공동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3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동 전시관을 운영한다. 부스 전면에는 배터리와 열관리 시스템, 타이어를 함께 배치한 차량 모형을 전시해 각 제품의 역할과 기술적 연계성을 보여준다. 계열사 고객망을 활용한 상담과 사업 미팅도 진행한다.

/이승혁 기자



NAVER

보령 비타민D 4000IU 츄어블

지금바로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엔비디아, 네이버 '3대 주주' 오른다… 1.3조 투자 확정

엔비디아, 주당 20만4500원에 네이버 655만8435주 인수 예정
투자 후 지분 약 4.13% 확보
브룩필드와 AI 팩토리 사업 추진
투자, 실질적 수익으로 이어져야

엔비디아의 네이버 지분 투자가 최종 확정되면서 양사의 인공지능(AI) 동맹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엔비디아는 1조3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네이버의 3대 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다.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협력이 본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4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엔비디아의 10억달러 규모 투자에 따른 원화 조달금액을 1조341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엔비디아는 주당 20만4500원에 네이버 신주 655만8435주를 인수한다. 투자금 납입 예정일은 오는 6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27일이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왼쪽)가 지난 6월 8일 경기 성남 네이버1784 사옥을 방문해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지분 약 4.13%를 확보한다. 국민연금공단과 블랙록에 이어 3대 주주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원화 투자금은 약 1397억원, 신주 발행 규모는 68만3129주 감소했다. 최초 적용 환율인 달러당 1480.9원이 1341.2원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결과다. 다만 달러 기준 투자 규모는 10억달러로 변동이 없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네이버와 엔비디아,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가 공동 추진하는 AI 팩토리 사업이다. 앞서 엔비디아는 투자 선결조건으로 네이버가 최소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브룩필드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

3사의 역할도 구체화됐다. 네이버는 AI 팩토리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고 엔비디아는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기술을 지원한다. 브룩필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자산 확보를 담당하는 구조다.

네이버는 세종 데이터센터 '각'을 중심으로 국내외 인프라를 확충해 2027년 상반기 55메가와트(㎿), 2028년 200㎿ 규모의 AI 팩토리 운영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1기가와트(GW)급 글로벌 AI 인프라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의 지분율은 기존 약 4.03%에서 3.8%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창업자의 지분 희석을 감수하면서까지 글로벌 AI 사업 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건은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보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GPU 공급과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을 결합한 3자 협력 모델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는 네이버가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GPU 공급과 글로벌 고객사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T·LG U+, 3분기 영업익 나란히 급증

SKT, 전년比 11.4배 증가한 5523억
LG U+, 84.1% 개선된 2976억 기록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일회성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4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두 회사 모두 영업이익을 대폭 끌어올렸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4배 증가한 5523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4조4973억원으로 13.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에 반영된 개인정보위원회 과징금(1347억원)과 대규모 고객보상 비용에 대한 기저 효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1667억원 순손실에서 올해 411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LG유플러스는 전년 대비 84.1% 개선한 297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임직원 희망퇴직으로 발생한 일회성 비용(약 1500억원)이 해소됐다.

다만 매출(3조9813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7% 소폭 줄었다. 자회사 LG헬로비전의 케이블TV 사업 침체 등이 영향을 미쳤다.

통신 사업은 가입 기반 확대와 매출 회복 흐름을 보였다. SK텔레콤은 고객생애가치(LTV) 중심의 마케팅 전환으로 이동통신 매출이 약 13% 증가했고, LG유플러스는 모바일 매출이 소폭 감소 했지만 가입 회선을 6.2% 늘리며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은 순항 중이다. SK텔레콤은 AIDC 매출이 6.2% 증가한 1261억원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과 해저케이블 트래픽이 증가한 영향이다. LG유플러스는 코로케이션과 DBO(설계·구축·운영) 매출 확대로 27.7% 증가한 1317억원을 달성했다.

현재 양사 모두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SK하이퍼와 SK호라이즌을 통해 사업개발과 인프라 운영을 추진하고, LG유플러스는 AIDC 투자 확대에 따라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편, KT의 3분기 실적은 오는 10일 발표된다. /조민선 기자 msjo@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들이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KT-고려대, AI 기술 공동연구 워크숍

글로벌 학회서 12건 논문 채택 성과

KT는 고려대학교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다양한 AI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에이전트, 멀티모달 추론, 피지컬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이다.

양 측은 글로벌 학회(EMNLP, SIGIR 등)에서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멀티모달 AI 모델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한국 문화 특화 벤치마크 'KSAFE-MM'를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KT는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과 연구 결과를 자사 AI 모델·서비스·플랫폼에 내재화할 방침이다. 또 축적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현장의 수요와 연계한 후속 연구개발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IBM, 연세대 양자컴퓨팅 플랫폼에 '나이트호크' 도입

차세대 양자컴퓨팅 플랫폼 기동식
IBM 시설 아닌 고객현장 첫 도입

IBM과 연세대학교가 4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차세대 양자컴퓨팅 플랫폼 가동식'을 열었다. 양측은 국제캠퍼스 양자컴퓨팅센터에 설치된 IBM 퀀텀 시스템 원에 'IBM 퀀텀 나이트호크' 프로세서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IBM 자체 시설이 아닌 고객 현장에 나이트호크가 도입된 것은 세계 처음이다.

연세대는 2024년 127큐비트 IBM 퀀텀 이글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이 양자컴퓨터를 국내에 처음 들여왔다. 프로세서를 업그레이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 컴퓨터의 비트는 0과 1 가운데 하나의 값만 갖지만, 양자컴퓨터의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큐비트가 하나 늘 때마다 한 번에 다루는 경우의 수는 두 배로 커진다.

나이트호크는 IBM이 지금까지 개발한 양자 프로세서 가운데 가장 빠른 제품이다. 제리 차우 IBM 양자중심슈퍼컴퓨팅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나이트호크에 대해 "120개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큐비트를 갖추고 있고 큐비트 간 연결 구조는 정사각형 격자 형태"라며 "실제 물리적 큐비트는 458개"라고 설명했다. 초당 10만 개 이상의 회로를 실행할 수 있으며, IBM은 기존 이글 대비 회로 처리량이 25배 높다고 밝혔다.


4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양자컴퓨팅센터에서 열린 '차세대 양자컴퓨팅 플랫폼 가동식'에서 IBM 퀀텀 나이트호크 프로세스 도입 기념 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IBM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큐비트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백한희 IBM 리서치 양자 알고리즘 센터 디렉터는 디지털 회로에 빗대 답했다. 일반 컴퓨터가 비트에 정보를 담고 논리 게이트로 연산하듯, 양자컴퓨터도 큐비트에 정보를 담고 이를 엮은 양자 회로로 연산한다는 것이다. 백 디렉터는 "양자컴퓨터의 성능은 양자 회로의 정확도와 실행 횟수가 결정한다"고 했다.

가동식 무대에서는 첫 실행 시연이 진행됐다. 내빈들이 버튼을 누르자 양자 프로그램 코드가 나이트호크 프로세서로 전송돼 실행됐다. 계산 결과는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슈퍼컴퓨터 '후가쿠'로 보내져 다시 계산된 뒤 인천 송도로 돌아왔다. /김보민 기자 kbm@

"미래의 강한 군대는 AI 통제·발전시킬 군대"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IAMSEC 2026'서 기조연설

네이버클라우드는 김유원 대표가 지난 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 육군 모델링·시뮬레이션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IAMSEC 2026)'에서 미래 전장에 필요한 AI 인프라와 안전한 AI 운용, 민·군 협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대표는 군에 필요한 AI 규모가 병력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보 수집 범위와 분석 주기, 시뮬레이션, 임무 규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 가지 AI를 하나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규모 모델과 시뮬레이션을 맡는 '중앙 AI 팩토리', 정보를 융합해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 AI', 통신이 끊겨도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AI'다.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AI 판단을 출처와 근거로 교차 검증하고, 중요한 행동은 사람의 승인을 거쳐 실행하는 '휴먼 인 더 루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와 모델, 인프라는 군이 직접 통제하는 '소버린 AI' 환경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미래의 강한 군대는 AI를 통제하고 스스로 발전시키는 군대일 것"이라며 "지휘부는 제도와 통제 체계를 만들고, 현장은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은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네이버클라우드도 군의 과학화와 지능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투자 조언인 줄 알았는데 홍보?”… 핀플루언서 광고 논란

〈금융+인플루언서〉

금감원, 핀플루언서 광고 실태 파악
광고 종료 후 같은 운용사 상품 추천
“자발적 투자 경험까지 관여 어려워”



넷플릭스 예능 ‘개미 김원훈 주식의 세계’ 캡쳐.

“상품이 좋아서 추천하는 걸까, 광고비를 받아서 소개하는 걸까.”

개인투자자 오혜주(32)씨는 최근 유튜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정보를 접할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든다. 투자 결정은 자신의 몫이라지만, 추천이 어떤 이해관계에서 나왔는지 모른 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상품 구조를 설명하다 특정 ETF를 추천하거나, 유료광고가 끝난 뒤 별도 대가 없는 영상에서 같은 운용사의 상품을 다시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자산운용사들의 광고 실태 파악에 나서면서 투자정보와 광고 사이의 모호한 경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ETF 발행 자산운용사에 핀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 현황을 지난 3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23일까지 체결한 계약이다. 자료제출 요구서에는 목적을 ‘운용사의 핀플루언서 관련 광고 실태 파악’으로 명시했다.

◆“이해관계 어디까지?”…광고 끝난 뒤에도 상품 추천

‘핀플루언서(Finfluencer)’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온라인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한다. ETF의 구조와 운용 전략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투자 경험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쟁점은 개별 콘텐츠의 대가성뿐 아니라 기존 광고 계약으로 형성된 이해관계다. 광고 영상에 협찬 사실을 표시했더라도 이후 별도 대가 없이 제작한 콘텐츠에서 같은 운용사의 상품을 추천하면, 투자자는 이전 거래 관계를 모른 채 독립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한 핀플루언서가 운용사의 유료 광고 영상을 제작한 뒤 별도 대가 없이 만든 후속 영상에서도 같은 운용사의 ETF를 추천했다는 사례가 제기됐다. 후속 영상에 직접적인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광고 관계가 추천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논란이 됐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상품 노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개미 김원훈: 주식의 세계’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지수 상품과 ESS ETF,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상품 등이 추천·매수 장면에 등장했다. 핀플루언서 출연자들이 상품을 설명하고 다른 출연자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브랜드와 상품명이 대화와 자막, 주문 화면 등에 노출됐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고, 제작 과정에서 상의한 바도 없다”며 “어떤 상품이 등장할지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을 지급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 진행한다”며 “해당 영상은 공개된 뒤에야 상품이 언급된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출연자 김원훈이 활동하는 유튜브 채널 ‘숏박스’가 KODEX 광고 콘텐츠를 제작한 이력은 있으나, 과거 광고 계약과 이번 예능의 상품 노출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 특정 상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출연자에게 과거 광고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광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투자자가 추천자의 경제적 관계를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 운용사가 관여하지 않은 후속 콘텐츠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자발적 추천까지 막기는 어려워”…광고 관리 범위가 관건

운용업계에서는 유튜브가 개인투자자에게 ETF를 알리는 주요 채널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한다. 거래소에서 직접 매매하는 ETF는 상품과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하고, 온라인에서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 등으로 콘텐츠의 도달 범위를 확인하기 쉽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ETF가 대중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상품인 만큼 이용자가 많이 모이는 채널로 광고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드러나는 유튜브의 홍보 효과를 가늠하기 쉽다는 취지다.

삼성자산운용의 영업보고서상 올해 상반기 광고선전비는 96억2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억3731만원보다 4.2% 증가했다. 다만 이는 회사 전체 광고선전비로, 핀플루언서 광고에 집행한 금액과 증감 여부는 해당 수치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광고 계약에 따른 콘텐츠와 창작자의 자발적인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운용사가 요청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범위를 넘어 핀플루언서가 자신의 투자 경험을 소개하는 경우까지 회사가 일일이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스스로 투자해 보고 좋다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 부분까지 회사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핀플루언서 자신의 투자 결과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운용사가 관여하기 애매하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자료 요구가 특정 위반 혐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에는 계정과목 수준의 금액만 표시돼 있어 그 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황 파악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향후 점검 범위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한 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이라고 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돈 안 받은 금융 추천도 규제… 해외는 이해상충까지 본다

EU, 투자 추천의 이해관계 공개 중시
국내는 금융사 광고 관리 강화 집중
광고-자발적인 상품 추천 경계 모호



해외에서는 핀플루언서의 이해관계 공개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에 나서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핀플루언서가 광고비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을 추천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까. 해외 주요국은 대가 지급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발언이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추천자의 이해관계, 활동의 영업성 등을 따져 공개 의무나 인가 요건을 적용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투자자가 추천의 객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둔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금융상품 매매나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면 투자 추천에 해당할 수 있다.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율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천자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이해상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여러 채널에 추천을 올렸다면 각 채널에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

영국과 호주는 정보 제공이 금융상품 홍보나 자문으로 넘어가는 경계를 구체화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규제 대상 금융상품을 홍보할 때 이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전달하도록 요구한다. 인가받지 않은 인플루언서가 적절한 인가업자의 승인 없이 해당 상품을 홍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과 투자를 권하는 것을 구분한다. 사실을 전달하는 형식이라도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면 금융상품 자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영업으로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인가나 인가업자의 대리 권한 등이 필요하다. 협업한 금융회사 역시 인플루언서의 위법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국내에도 활동 방식에 따른 규율은 있다. 2024년 8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할 수 있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회원제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은 투자자문업으로 규율한다. 다만 이 같은 영업 규율만으로 운용사 광고와 자발적인 상품 추천 사이의 경계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최근 국내 개선안은 광고를 집행하는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9월 발표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은 온라인 채널 광고의 계약·심의·사후관리 단계별 점검항목을 마련하고 회사의 사전검토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관리 범위도 광고 전후로 넓힌다. 시황 분석 등에 광고성 내용이 섞였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이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체 채널의 신규 상장 ETF·고위험 상품 동영상 광고는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게시 후에는 최종 심사안과 실제 광고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했다. 9월 발표 당시 시행 목표는 내년 1월이었다.

해외 사례가 추천자 자신의 이해상충과 발언의 성격까지 살핀다면, 국내 광고 개선안은 금융회사가 관여하는 콘텐츠의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광고 계약이 끝난 뒤 이어지는 상품 추천처럼 회사의 관여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에서는 이해관계 공개 범위와 관리 책임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남아 있다. /허정윤 기자

美 무기한 주식 선물 허용… 업계 반발

칼시, 암젠·맥도날드 등 거래 개시

미국 금융당국이 개별 주식의 가격 변동에 연동되는 무기한 선물 상품인 ‘퍼페추얼’ 거래를 허용하면서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다. 다만 24시간 거래와 높은 레버리지를 특징으로 하는 만큼 금융시장 불안과 투자자 보호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별 주식에 연계된 퍼페추얼 선물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초 가상화폐 퍼페추얼 거래를 허용한 데 이어 개별 주식으로 승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퍼페추얼은 일반적인 선물 계약과 달리 별도의 만기일이 없는 파생상품이다.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적은 증거금으로 큰 규모의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으며, 거래 시간에 제한이 없어 24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반면 기초자산 가격이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셀리그 위원장은 이번 주식 퍼페추얼 계약이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동 규제를 받는 ‘증권선물(Security futures)’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체계 안에서 상품 거래를 허용해 해외 플랫폼으로 향하는 미국 투자자들을 자국 시장으로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미국 투자자들이 규제받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바꾸고, 무기한 선물거래의 이점을 미국 시장 참여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상품 출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는 금융당국의 승인 발표 이후 암젠, 맥도날드, 퀄컴, 코스트코 등 4개 기업 주가에 연동되는 단일 종목 퍼페추얼 계약 거래를 시작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시장 진입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비트노미얼 등은 개별 주식 퍼페추얼 상품 출시를 예고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로 활용되던 무기한 선물 거래 방식이 전통 주식시장으로 확산하는 셈이다.

그러나 전통 파생상품 거래소들은 신규 상품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운영하는 인터컨티넨탈거래소(IC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등이 우려를 제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취업난에 창업 내몰린 청년들… 자영업자 수 3년 만에 '반등'

국가데이터처, 8월 비임금근로 조사
전체 자영업자 578만4000명 기록
29세 이하 1년 새 19.4% 급증
취업 어려워 창업한 비중 21.7%
70세 이상 비중 역대 최고 수준



1일 서울 시내의 한 상점에 '임대' 문구가 나붙어 있다. /뉴시스

국내 자영업자 수가 3년 만에 반등했다. 취업난 탓에 창업 대열에 합류했다는 응답이 올해 크게 높아졌다. 특히 29세이하 자영업자는 1년 사이 20%가량 늘어났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전체 자영업자는 578만4000명으로, 지난 2023년(578만4000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024년(574만5000명)과 2025년(567만5000명)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3년 만에 반등한 것.

증가세는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15~29세 자영업자 수는 1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7000명(19.4%) 늘었다. 청년층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2000명으로 3000명 증가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3만4000명으로 2만4000명 늘었다.

30대에서도 지난해 65만 명에서 올해 70만 명으로 5만 명 늘었다. 70세이상도 1년 새 2만3000명이 증가했다. 또 전체 자영업자 중 70세이상 비중은 14.6%로, 2007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올해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처는 최근 1년 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업시작 동기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21.7%로 지난해 조사(17.9%) 때보다 3.8%p 올랐다.

반면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라고 답한 응답 비중은 70.8%로 3.0%포인트(p) 내렸다. 일자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비율도 높아졌다.

현재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일자리(사업)를 경험한 경우는 80.7%로 지난해보다 3.0%p 낮아졌다.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는 19.3%로 3.0%p 올랐다.

신규 자영업자의 최초 사업자금 규모는 ▲500만 원 미만 35.2% ▲500만~2000만 19.8% ▲2000만~5000만 16.8% ▲5000만~1억 17.3% ▲1억~3억 8.6% ▲3억 이상 2.4%였다.

사업자금 500만 원 미만(31.9→35.2%)과 1억~3억(8.0→8.6%), 3억 이상(1.6→2.4%)의 비중은 상승했다. 이에 반해 500만~2000만(22.2→19.8%), 2000만~5000만(18.8→16.8%), 5000만~1억(17.5→17.3%)은 하락했다.

사업자금 조달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70.3%)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보험회사·상호신용금고(18.9%), 별도 자본 필요 없음(18.5%), 친지 또는 동업자의 자금(6.1%), 타인에게 빌림(4.3%) 순이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으로 사업을 조달한 자영업자 비율(68.6→70.3%)은 지난해보다 높아진 반면, 은행·보험회사·상호신용금고 등(21.3→18.9%)에서 자금을 마련한 비율은 떨어졌다. 이들은 사업 시작시 애로사항으로 사업정보·경영노하우 습득(28.4%), 사업자금의 조달(24.1%), 판매선 확보 및 홍보(23.6%), 입지선정·기술개발 및 시설 확보(10.3%) 등을 꼽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김장철 배추·무값 하락에 수매 나선다

농식품부, 배추 1만t·무 3000t 비축
작황 호조에 김장재료 가격 약세
공급과잉 지속 땐 출하정지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김장재료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부가 김장재료의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이달 배추·무에 대한 수매에 나선다. 예년에 비해 출하량이 증가한 데 따른 대책이다. 또 공급이 급증할 시 출하를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주요 김장재료의 출하 상황 및 도매가격 등을 살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김장재료 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가량 낮은 수준이다. 특히 주재료인 배추와 무가 작황 호조의 영향으로 김장성수기(11월 중순~12월 상순) 기간 전년·평년에 비해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의 동시다발적, 다량 공급에 대비해 11월 상순부터 배추 1만 톤(t), 무 3000t을 수매해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급과잉이 지속될 시 산지 일시 출하정지 등의 추가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올해는 배추·무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매법인·농협 경제지주 등 관계기관 및 단체가, 김장 붐조성을 통한 소비확대 유도와 함께 수급조절·출하자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김장용 가을배추와 무 생산량이 각각 작년과 비교해 각각 18.5%, 11.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배추 1포기의 평균 소비자가는 포기당 3969원으로 전년대비 23.5% 낮았다. 무는 개당 2038원으로 9.2% 내렸고 양파와 대파도 kg당 1890원, 2274원으로 각각 14.9%, 30% 내렸다.

농경연 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정에서 김장을 직접 하는 비중은 58.6%로 지난해보다 5.6%포인트(p)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김장배추 수요가 58만3000t으로 9.1%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유럽 원전시장 공략 위한 인증 협력 강화

한수원, TUV 라인란드와 MOU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인 TUV 라인란드(TUV Rheinland)와 손잡고 까다로운 유럽 원자력발전소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수원은 지난 3일 TUV 라인란드와 '유럽 원자력발전소의 디지털 기기 인증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럽 원전에 적용될 핵심 디지털 설비를 유럽의 엄격한 기술 기준에 맞춰 개발·검증하고, 성공적으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원전 시장은 안전 등급 설비의 디지털화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나, 유럽은 기술 규제와 인허가 요건이 특히 까다롭다.

협약에 따라 한수원은 유럽 원전의 디지털 기기 인증 절차와 관련된 설비 및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TUV 라인란드 코리아는 유럽 인증에 필수적인 인허가 전략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인증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양 기관은 향후 5년 간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고 긴밀한 정보 교류와 실질적인 기술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엄격한 유럽 원전 시장의 기술 규제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한편, 안전 등급 디지털 기기의 인증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유럽 지역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기술적 기반이자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이돈국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세계적인 인증 역량을 갖춘 TU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한수원이 공급할 디지털 설비가 유럽의 엄격한 기술 및 안전 기준을 완벽히 입증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인증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내 해양수산업 산출액 197조7000억 달해

해수부·OECD, 해양경제 국제 세미나
취업자 77만7000명·부가가치 63조

국내 해양수산업 취업자 수가 77만7000명, 총 산출액은 197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는 63조2000억 원으로 전체 산업 부가가치에 차지하는 비중이 2.8%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위성계정' 연구 성과와 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63조 원대 부가가치 가운데 해운·항만업의 부가가치가 19조90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선박·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이 13조5000억 원,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이 11조7000억 원,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이 합계 10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 위성계정은 작년 12월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았다. 해운·항만, 조선, 수산업, 해양관광 등 여러 산업의 부가가치, 고용 현황 등을 제공한다. 해수부는 OECD 등과 해양수산 위성계정을 비롯한 해양경제의 측정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달 5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세계와 한국의 해양경제 측정'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고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 행사는 제20회 세계해양포럼(WOF) 특별 세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함께 마련했다.

OECD는 세계 해양경제에 대한 보고서인 '한눈에 보는 해양경제'를 소개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해양경제는 1995년부터 작년까지 30년간 2.3배 성장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가스公, 폐가전 10톤 수거

자원순환 캠페인 성과 2배↑

한국가스공사가 임직원과 자회사·협력사가 함께 펼친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10톤이 넘는 폐가전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4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자원순환의 날' 계기 캠페인의 후속 조치로 폐전기·전자제품 수거 실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총 1만175kg의 폐가전을 수거했다. 이는 지난해 수거량인 4809kg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올해는 사옥과 가정에서 방치되던 폐가전 수거 대상을 자회사와 협력사까지 대폭 확대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 앞서 가스공사는 E-순환거버넌스 협약을 통해 수거 절차를 개선하고 상시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2025년 ESG 자원순환 어워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최대 국산 터빈 해상풍력 추진

영광 야월해상풍력 PF 금융약정 체결

한국남부발전이 국산 터빈을 적용한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기반을 다졌다.

남부발전은 지난달 27일 '영광 야월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 영광군 해상에 104MW급 단지를 건설·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한 8MW급 대형 해상풍력 터빈 13기를 도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산 터빈 적용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시행 이후 국산 터빈을 적용해 낙찰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금융약정에는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 금융주선사로 참여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펀드가 주주사로 합류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및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자사업에 동시 선정되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확보했다.

남부발전은 향후 사업의 운영 및 유지보수(O&M)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최초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을 해상풍력 분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계약서내에 명문화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조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금융약정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국민성장펀드를 함께 활용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에스앤마일즈가 선택받는 이유

철강·금속 산업 전문성
산업 특성을 이해한 전문 노하우로
최적의 출장·행사 서비스 제공.

해외 네트워크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 맞춤 일정 설계
목적과 예산에 맞춘 최적의 일정과
프로그램 설계

24시간 지원 서비스
현지 긴급 지원 및 상담 서비스로
안심 비즈니스 지원

현지 운영 지원
숙련된 현지 운영팀이 행사 전 과정
원활하게 관리

기업 맞춤 인센티브 투어

목적과 예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기업 골프 행사
기업의 목적에 맞는 골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고객사 사은 행사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
로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해외 워크숍·세미나
항공·호텔·회의·관광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기획 → 항공 → 호텔 → 현지 운영 → 귀국
ONE STOP 서비스!

2026~27 글로벌 산업 전시회

항공 + 호텔 + 여행자보험 패키지로 편리하게!



01 세계 밸브 산업의 중심
VALVE WORLD EXPO 2026

VALVE WORLD EXPO DÜSSELDORF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6. 12. 01(화)~12. 03(목)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215만원~
3박 4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02 금속 용접 / 절단 기술 전시회
URBAN STEEL EXPO 2027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7. 04. 20(화)~04. 23(금)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350만원~
5박 7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03 주조 / 열처리 / 야금 / 캐스팅
금속분야 최대 국제 전시회
GMTN 2027

GIFA METEC THERM PROCESS NEWCAST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7. 06. 21(월)~06. 25(금)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350만원~
5박 7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상기 요금은 기준 출발일 및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항공·호텔 예약 상황에 따라 실제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Miles 기업전문 여행사
기업 출장 · 인센티브 · MICE S&Miles와 상담하세요!
맞춤 기획서 · 견적 무료 컨설팅!
02-3487-2800
smkang@snmiles.com
www.snmiles.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0
에스앤마일즈 여행사

청송·구미 등 축제 릴레이… 경북도, 안전·편의대책 '이상무'

사과·라면·불꽃쇼 등 주제 다채
지역별 특색, 관광 콘텐츠 발전
"경북,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청송사과축제 포스터.



구미라면축제 포스터.



울진 죽변항 수산물축제 포스터.



포항국제불빛축제 포스터.

경북도는 청송·구미·울진·포항 등 4개 시군에서 사과·라면·수산물·해병대 문화·불꽃쇼를 주제로 한 5개 축제를 잇따라 개최한다. 도는 지역별 특색을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한편 축제 기간 안전관리와 교통·관람 편의 대책도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인 '제20회 청송사과축제'는 4일부터 8일까지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일원에서 열린다. '지금 청송! 사과로 물들다'를 주제로 청송사과 전시·판매와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사과 쌓기와 껍질 길게 깎기, 당도 맞히기로 구성된 '사과올림픽'을 비롯해 꿀잼-사과난타, 황금사과 찾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청송사과 꽃줄 엮기 전국대회와 제20회 개최 기념 블랙이글스 에어쇼도 열린다.

도 지정 최우수 축제인 '제5회 구미라면축제'는 6일부터 8일까지 구미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내 대표 라면 생산시설이 있는 구미의 산업적 특색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 축제다.

축제장에는 다양한 라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라면 레스토랑'과 면·스프·토핑을 조합해 나만의 라면을 만드는 '스프LAB & 셀프 조리존'이 운영된다. 세계 13개국 참가자가 요리 솜씨를 겨루는 '글로벌 라면 챌린지'도 열린다.

같은 기간인 6일부터 8일까지는 도 지정 유망 축제인 '제6회 울진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죽변항 일원에서 열린다. '가자 죽변항!, 먹자 수산물!'을 주제로 청정 동해의 신선한 수산물을 선보인다.

맨손 활어잡기와 수산물 즉석경매, 해체쇼, 화합의 물회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어선 퍼레이드와 바다공방 체험도 마련된다.

해병대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2026 포항 해병대문화축제'는 14일부터 15일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의거리와 해병대 제1사단 일원에서 펼쳐진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군부대를 개방해 장갑차 탑승과 군 장비 전시, 전투체력 체험을 제공한다. 한·미 해병대가 함께하는 민·관·군 화합행진과 군악대·의장대 시범, 서바이벌 게임, 미션 랠리도 운영된다.

도 지정 우수 축제인 '제22회 포항국제불빛축제'는 19일부터 21일까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21일에는 국내외 불꽃 연출팀이 참여하는 국제불꽃쇼가 영일만의 밤하늘을 밝힌다.

건물 외벽에 LED 조명·영상·프로젝션을 활용해 빛과 영상을 연출하는 미디어파사드와 시민 참여형 야간 퍼레이드인 '나이트 카니발' 등 야간 콘텐츠도 선보인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마다 가진 특색을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경북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기도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경기도가 제2판교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중심으로 코스닥 상장 민간기업 3사와 협력해 스타트업 발굴·육성과 투자,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창업기업의 보육과 투자유치, 기술협력,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민간 창업보육 거점이다. 지난해 9월 보육공간 개소 이후 약 1년간 120개사를 입주·보육하고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60여 차례 운영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중심으로 공공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민간기업의 투자·기술·사업화 역량을 연계해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하동군

'뉴욕 하동차문화관' 개관

하동군이 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의 TEO Nomad에 '뉴욕 하동차문화관'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김현수 하동군수와 신승미 TEO Nomad 대표, 이정미 뉴욕한국문화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지 공공기관·한인 단체 관계자와 차 전문가, 대학 교수, 식음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군은 '뉴욕 하동차문화관'을 통해 하동 차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미국 시장의 판매·수출 경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동(경남)=박현철 기자

문경시

'머큐리광통신' 기업 유치

문경시는 인천에 있는 광섬유·광케이블 전문기업 ㈜머큐리광통신의 문경 이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치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기업 유치 성과다.

문경시는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유치를 핵심 시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기업 유치를 계기로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연관 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문경(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주시

폐현수막 자원순환체계 구축

경주시는 폐현수막을 재생 원료로 전환하고 다시 현수막으로 제작·사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계는 경주시가 폐현수막을 수거하면 SK케미칼이 화학적 재활용 기술로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원사 생산과 품질 검증을 맡고, 대한미디어와 리앤생은 원단 제조와 인쇄를 담당한다. 완성된 현수막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구매해 사용한 뒤 다시 수거·재활용한다.

시는 경주지역 상업용·행정용 게시대에 우선 사용하고 향후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경남도, '우주항공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9일 '영호남 범국민 결의대회' 진행
박완수 도지사 등 500여명 참석 예정



경남도는 오는 9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천시·고흥군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영호남 범국민 결의대회'를 연다. 참가자들은 특별법의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상정과 연내 국회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서천호·문금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천상공회의소와 여수(고흥)상공회의소가 주관한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11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자리다.

대회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사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사천·고흥 주민, 재경향우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발언과 피켓 구호 제창 등이 진행된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여야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영호남 시도민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특별법 처리와 남해안권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관계 지자체, 여야 국회의원들과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박완수 지사와 민형배 시장이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행사다.

/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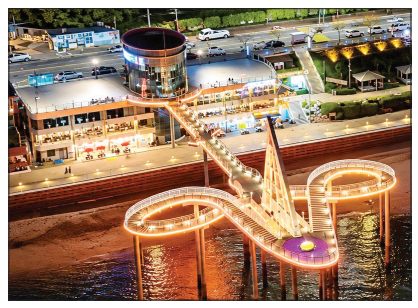
목포시, '대반동 야간경관 개선사업' 완료

유달유원지 일원 관광명소 육성

목포시는 대반동 유달유원지 일원에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 등 다채로운 야간 볼거리를 조성하는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3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목포대교와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어우러진 유달유원지의 야간경관을 개선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목포를 대표하는 야간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시 대반동 유달유원지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 23억원 투입해 2025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4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10월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다.


목포시 대반동 유달유원지 전경. /목포시

주요 사업내용은 옹벽과 해변에 비디오프로젝터를 활용해 목포의 이야기가 담긴 미디어아트를 설치해 이색적인 야간 볼거리를 조성하고, 노후 조명을 교체하는 등 경관조명을 개선했다.

/목포(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홍성군, 가축전염병 비상방역체계 가동

내년 3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홍성군이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선제적 차단방역에 나섰다.

홍성군은 철새 이동과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3월까지를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3대 가축전염병의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군청에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과 신속한 초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은 단 한 번의 방역 실패로도 지역경제와 국가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이 동절기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거점세척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홍성군

/홍성(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기신보, 디지털 상담 서비스 강화

영업시간 외에도 보증 관련 정보 제공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영업시간 외에도 보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 채널을 변경해도 문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디지털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영업과 거래처 대응 등으로 금융 상담 시간을 내기 어렵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오가며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불편도 있다. 경기신보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지난 10월 26일 이지원 고도화를 통해 상담 시간과 채널에 따른 제약을 줄였다.

AI 챗봇은 이지원과 경기신보 홈페이지, 카카오톡에서 보증 대상과 준비 서류, 신청 절차 등을 365일 24시간 안내한다. 영업을 마친 저녁이나 주말에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보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다.

전화 상담에는 AI 콜봇을 도입했다. 고객이 문의 내용을 말하면 AI 콜봇이 먼저 응대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에게 연결한다. 다만 상담원 연결은 고객센터 운영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상담 이력도 통합했다. 이지원과 고객센터, 카카오톡 등에서 문의한 내용을 연계해 다른 채널로 상담을 이어가더라도 이전 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홈플러스, M&A 난항·자금난 지속… 전면 셧다운 가능성

현재까지 확인된 인수의향자 없어
정산지연·임금체불 등 피해 확산
공대위, 정부지원·책임규명 촉구


지난달 27일 경기도 소재 폐점 홈플러스 매장. /뉴시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매각 난항과 자금난으로 이달 중 전 점포 휴점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금 체불과 희망퇴직 취소에 이어 납품대금 정산 지연 등 입점업체 피해까지 확산하자 정치권과 노동계는 정부의 긴급 지원과 대주주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보당, 사회민주당,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서울회생법원이 10월 말까지 인수의향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인수의향자는 없다"며 "전체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동료들이 휴업 상태에 놓여 있고, 임금은 반복적으로 체불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점업체의 피해 사례도 공개됐다. 황지욱 홈플러스 파주운정점 입점점주는 본사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매장 전기 공급이 중단돼 폐업했으며, 폐업 이후에도 보증금과 6월 매출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점주는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매달 나가는 생계비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이냐"며 미지급 대금의 즉각적인 지급과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긴급 정상화 대책 마련과 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및 고용안정, 폐점 지역 노동자와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피해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경영 책임을 규명하고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홈플러스의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이달 중 전 점포 휴점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노조 측은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추가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르면 이달 내 전 점포가 다시 휴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휴점이 현실화되면 영업 재개 시점을 기약하기 어려워 사실상 전면 셧다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9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경영 정상화에 나섰지만 매출은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 8월 영업 재개 이후 18일간 1164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초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재개장 효과가 줄어든 데다 추석 대목에도 선물세트를 판매하지 못하면서 매출 회복세가 꺾였다.

자금난 여파로 희망퇴직 취소와 임금 체불도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희망퇴직 예정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경영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희망퇴직 절차를 취소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7일부터 22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직원이 몰리면서 14일 접수를 조기 마감했다. 노조는 신청 인원이 400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8월분 급여 잔여액 75%의 지급도 무기한 연기됐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3일 8월분 급여의 25%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75%를 30일 지급하기로 했지만,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급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일정을 다시 미뤘다.

홈플러스의 경영난이 장기화하면서 입점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 거래업체의 63.0%가 지난 7~9월 주거래 대형마트를 통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회생의 주요 돌파구로 꼽히는 인수합병(M&A)도 난항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계획이었지만 뚜렷한 인수 후보를 찾지 못했다.

공대위는 "인수의향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홈플러스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며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협력업체의 생계를 보호하는 한편,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뉴트리솔루션' 선봬… 글로벌 동물영양 시장 공략

사료배합 종합 분석 디지털 플랫폼
원료공급 넘어 기술 컨설팅 영역 확장

CJ제일제당이 사료용 아미노산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동물 영양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사료 배합에 따른 영양 가치와 경제성은 물론 탄소배출량까지 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선보이며 기존 원료 공급 중심의 사업을 기술 컨설팅 영역으로 확장한다.

CJ제일제당은 사료 배합별 영양 가치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 '뉴트리솔루션(NutriSolution)'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축산 박람회 '유로티어(EuroTier) 2026'에서 처음 공개된다.

NewtriSolution™
뉴트리솔루션 로고. /CJ제일제당

뉴트리솔루션은 사료에 사용되는 아미노산과 각종 원료·첨가제의 기능 및 효과, 적정 함량 등을 분석해 최적의 배합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원료별 함량에 따른 제품의 수익성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이 35년간 사료용 아미노산 사업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아미노산 함량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능도 갖췄다. 이를 통해 사료 제조사는 동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 조건과 제품의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 배합을 설계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의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분석 기능도 적용했다. 배합 원료의 원산지와 운송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배출량을 산출한다. 사료 제조사들은 이를 제품 개발에 반영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뉴트리솔루션을 단순 배합 분석 서비스를 넘어 고객사의 제품 개발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 컨설팅 플랫폼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미노산 중심의 동물 영양 사업에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홍영기 CJ제일제당 기술영업팀장은 "사료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동물을 위한 영양과 제품의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라며 "축적된 데이터와 동물 영양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사료용 아미노산 브랜드 '베스트아미노(BESTAMINO)'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해왔다. 1991년 라이신을 시작으로 쓰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등으로 제품군을 넓혔으며 현재 총 8종의 사료용 아미노산을 보유하고 있다. 트립토판과 알지닌, 이소류신, 히스티딘 등 4개 품목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제품


프리미엄 가나 시즌 한정 제품 4종.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

프리미엄 가나 한정판

롯데웰푸드는 주요 편의점과 대형마트 전용 '프리미엄 가나' 시즌 한정 제품 4종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제품은 초콜릿 안에 다양한 필링을 채운 쉘 타입으로 구성됐다.

세븐일레븐에서는 커스터드 크림과 카라멜 칩을 넣은 '프리미엄 가나 크림브륄레'를 판매한다. CU 전용 제품인 '프리미엄 가나 소금우유'는 소금우유 필링과 카라멜 칩을 조합했다. GS25와 GS더프레시에서는 다크 초콜릿 쉘에 호지차 필링을 채운 '프리미엄 가나 호지차'를 선보인다.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에서는 꿀맛 필링과 배 시럽을 조합한 '프리미엄 가나 허니&페어'를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백화점

VIP 쇼핑 서비스 확대

큐레이션 플랫폼 '더 쇼케이스' 고도화

신세계백화점이 VIP 전용 큐레이션 플랫폼 '더 쇼케이스'를 통해 VIP 쇼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출시한 더 쇼케이스는 백화점 앱을 통해 자동차와 주류, 전통공예, 맞춤형 공간 컨설팅 등 기존 매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희소성 높은 상품과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호응을 얻으며 올해 구매 객단가는 지난해의 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슈퍼카와 맞춤형 주방 등 개인의 취향과 생활방식을 반영한 상품에 대한 VIP 고객의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이외에도 국가유산청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칠장·나전장·낙화장 등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의 공예 작품도 선보였다. /김서현 기자

현대백화점, 본업·면세 '양날개'… 전년대비 영업익 30% ⬆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1723억
백화점 영업익 1141억… 27.8% ⬆

현대백화점이 올해 3분기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의 동반 성장에 힘입어 영업이익을 30% 이상 늘렸다. 외국인 고객 증가와 명품·패션 판매 호조가 실적을 견인한 반면, 매트리스 계열사 지누스는 미국 시장의 소비 부진으로 적자를 이어갔다.

4일 현대백화점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1723억원, 영업이익 94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0%, 30.1%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인 847억원을 11.7% 웃돌았다. 당기순이익은 307억원으로 35.7% 감소했다.

실적 개선을 이끈 것은 백화점 사업이다. 3분기 백화점 부문 순매출은 61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41억원으로 27.8% 늘었다. 외국인 고객 유입이 확대된 가운데 패션과 명품, 고가 주얼리 등 주요 상품군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현대백화점그룹 사옥 전경.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3분기 순매출은 36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2억원으로 145.6% 늘었다. 입출국자 수 증가와 지난 4월 개장한 인천공항 DF2 구역의 매출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면세점 사업은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매트리스 계열사 지누스는 부진했다. 3분기 순매출은 2252억원으로 6.8% 감소했고, 영업손실 125억원을 기록했다. 주력 시장인 미국의 소비 위축으로 주요 고객사의 매트리스 주문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고객사 주문량이 점차 회복되고 비용 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적자 폭은 전 분기보다 줄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이날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 23만2460주를 소각한다고도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약 210억원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다.

/김서현 기자

롯데칠성음료

'설중매' 제로슈거 리뉴얼

롯데칠성음료가 제로슈거와 낮아진 알코올 도수를 앞세워 매실주 시장 공략에 나선다.

롯데칠성음료는 국내 매실주 최초로 당 함량 0g의 제로슈거를 적용한 '설중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리뉴얼 제품은 전남 광양에서 수확한 햇매실을 100% 사용하고, 매실침출주 비중을 높여 원료 본연의 맛과 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 깔끔한 음용감을 구현했다. /신원선 기자

암세포 단백질만 분해… 핀테라퓨틱스, 美 신속심사 지정

침샘암 치료제 후보물질 'PIN-5018'
임상 1상 4개 용량 단계 평가 완료
내년 임상 1상 마무리… 데이터 공개



핀테라퓨틱스는 자사가 개발 중인 침샘암(선양낭성암) 치료제 후보물질 'PIN-5018'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핀테라퓨틱스는 자사가 개발 중인 침샘암(선양낭성암·ACC) 치료제 후보물질 'PIN-5018'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패스트트랙(Fast Track) 지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초고속 심사 제도를 발판 삼아 상용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PIN-5018'은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특정 단백질(CK1α)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경구용(먹는 약) 분자접착제 분해약물(MGD)이다.

기존 항암제들이 정상 세포까지 타격을 주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를 가졌다면, 이 약은 CK1α에만 붙어 분해하는 최신 기전을 갖고 있다. 특히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필요 없이 하루 한 번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알약 형태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은다.

FDA의 '패스트트랙'은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고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신약을 개발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된 FDA의 특별 제도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신약 개발 과정에서 FDA와 더 자주 소통할 수 있고, 임상시험 디자인이나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FDA 협의를 거쳐 허가신청 자료를 준비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롤링리뷰(rolling review)를 활용해 전체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이다. 가속승인은 환자의 최종 생존 기간을 증명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전통적인 절차 대신, 효과를 먼저 입증해 신약을 조기에 시장에 내놓는 제도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약물은 임상 2상 결과 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가속 승인 대상이 될 자격을 얻는다.

핀테라퓨틱스는 PIN-5018의 적응증을 확대해 ACC 뿐 아니라 대장암(CRC), 거세저항성 전립선암(CRPC)에서도 임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임상1상에서 PIN-5018의 안전성, 내약성, 초기 항종양 활성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 9월28일 기준으로 4개 용량 단계까지 평가를 완료했고, 지금까지 용량제한독성(DLT)은 관찰되지 않았다.

조현선 핀테라퓨틱스 대표는 "2027년 2~3분기까지 임상을 마치고 추후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데이터가 긍정적일 경우, 곧바로 글로벌 가속 승인 임상에 진입할 계획"이라며 "가속 승인 임상 규모는 대체로 40~6명 수준이어서 속도는 빠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부광약품, 21년 만에 글로벌 기술수출 성과

사우디에 '덱시드정' 공급 계약 체결
향후 생산 기술 이전·거점 확보 추진



위삼 삼브 자란홀딩그룹 대표(왼쪽)와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가 '덱시드' 사우디 기술수출을 위한 계약식을 화상으로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부광약품

부광약품이 자체 개발 신약의 글로벌 기술수출로 핵심 경쟁력을 입증했다. R&D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중동 등 신흥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해외 사업을 본격화한다.

부광약품은 4일 사우디아라비아 대기업 자란홀딩그룹의 제약사 나사크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 '덱시드정'의 사우디 기술수출 및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B형간염 치료제 '레보비르' 이후 21년 만에 거둔 자체 파이프라인의 해외 진출이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최소구매금액은 약 266만 달러(약 37억원)이며 판매 예측치 기준 약 453만 달러(약 63억원) 수준이다.

나사크는 현지 허가와 유통, 마케팅을 전담한다. 이러한 완제품 판매 판권 계약과 함께 부광약품은 사우디 '비전 2030' 정책에 맞춰 생산 기술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사우디의 의약품 현지화 기조에 적극 대응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전역을 겨냥한 교두보를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부광약품은 초기 완제품을 공급하고 이어 생산 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광약품은 라투다 적응증에 우울장애(MDD)를 추가하기 위한 국내 임상 3상에 착수하는 등 후속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해외 자회사를 통한 글로벌 임상 모멘텀도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자회사 콘테라파마는 파킨슨병 아침무동증 치료제 'CP-012'의 임상 2상(DAWN-PD)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고 임상 개시 준비에 들어갔다.

이러한 'R&D 선순환 구조' 구축과 함께 생산과 브랜드 체질 개선 작업도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부광약품은 최근 회생절차를 밟던 한국유니온제약 인수를 완료하고 사명을 '부광유니파마'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항생제와 주사제 등 기존에 부족했던 생산 인프라를 전격 확보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적응증 확대

FDA에 추가 허가 신청

SK바이오팜은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치료 영역 확대를 위해 3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만 12세 이상 환자의 일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PGTC)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 신약허가 신청(sNDA)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글로벌 임상 3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해당 임상은 미국과 한국, 유럽을 포함한 12개국 122개 임상기관에서 만 12세 이상 PGTC 환자 1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 결과, PGTC 발작 빈도 중앙값은 기저치 대비 세노바메이트 투여군에서 71.9%, 위약군에서 39.6% 감소해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3). 안전성 평가에서는 보고된 이상사례의 대부분이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이었으며, 세노바메이트의 기존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안전성 이슈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이세경 기자

HLB 간암 신약, 미국 FDA 심사 재개

내년 4월 9일 최종 결정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신청한 간암 신약 병용요법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심사가 재개됐다. FDA가 이번 재심사를 'Class 2'로 분류하면서 오는 2027년 4월 9일 이내에 국산 항암 신약의 최종 미국 시장 진출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신약 허가 신청(NDA) 및 생물의약품 허가(BLA) 재제출 건에 대해 FDA로부터 본심사 착수를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심사는 6개월이 소요되는 'Class 2'로 분류되면서 전문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에 따른 최종 심사 기한은 2027년 4월 9일로 확정됐다. FDA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에 대한 두 개 신청서를 통합 심사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론짓는다. 앞서 지난달 9일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 신청(NDA)를, 항서제약은 캄렐리주맙의 생물의약품 허가(BLA)를 각각 재제출했다.

/이청하 기자

삼바에피스, 테바와 5600억 美 판권 계약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상업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글로벌 제약사 테바와 최대 5600억원 규모의 미국 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상업화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대형 파트너사의 유통망을 활용해 시장을 선점하고 K바이오시밀러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일(현지 시간) 테바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SB2(성분명: 인플릭시맙)'와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SB4(성분명: 에타너셉트)' 2종의 미국 시장 판권을 테바에 넘기는 라이선스 및 상업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의 총 규모는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4억 2000만 달러(약 5632억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홀딩스의 2025년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의 약 3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만 최대 7500만 달러(약 1006억원)이다. 계약 효력 발생 30일 이내에 5000만 달러를 수령하고 향후 조건 충족 시 2500만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이와 함께 제품 출시 및 누적 매출 달성에 따른 마일스톤은 각각 최대 7500만 달러와 2억 7000만 달러다.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해당 제품의 허가 유지와 글로벌 생산 및 공급을 전담하며, 테바는 미국 현지 시장에서의 영업·마케팅과 판매를 전적으로 맡는다. SB4 판권은 필요 규제 승인 등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테바로 이전되며 올해 말로 예정됐다. SB2 판권은 오는 2027년 3분기에 테바로 이전된다. 계약기간 등 기타 세부사항은 경영상 비밀유지 및 양사협의에 따라 비공개됐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4중 작용 비만치료제 체중 감량 효과 확인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4중 작용 비만치료제 신약이 비임상에서 큰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 셀트리온은 내년 2분기 첫 환자 투약을 목표로 글로벌 임상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4일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와 글루코스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타이드(GIP), 글루카곤(Glucagon), 아밀린(Amylin) 등 네 가지 호르몬 경로를 하나의 후보물질로 동시에 표적하도록 설계한 세계 최초의 4중 작용 비만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CT-G32/SCO-940'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3~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글로벌 전문 학회 'TIDES 유럽'에서 발표됐다. /이세경 기자

파마리서치, 눈가 주름 개선 '자이쥬란' 출시

국소 부위에 최적화



재생의학 전문기업 파마리서치가 주력 제품인 '리쥬란'에 이어 국소 부위에서 활용 가능한 신제품으로 제품군을 강화하며 미용의료 시장 지배력을 넓힌다.

파마리서치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인 눈꼬리 잔주름 일시적 개선을 목적으로 품목허가를 취득한 '자이쥬란'(사진)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자이쥬란은 4등급 조직수복용생체재료 기반 주입형 의료기기다. 파마리서치가 독자 구축한 정제 기술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티드(PN)에 히알루론산(HA)을 최적의 비율로 처방했다.

자이쥬란은 주성분인 PN과 HA의 높은 수분 친화력을 활용해 피부 속 주름진 부위에서 수분을 끌어모아 물리적으로 매끄럽게 펴줄 수 있다.

/이청하 기자



대체불가 K-에너지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2026년 11월 10일(화) 오후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2026년 11월 10일(화) 14:00~16:3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국회의원 안호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메트로경제)
후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록 참가비 무료
문　　의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연사 소개



이종민
- 한전기술지주 대표
- 전 SK텔레콤 부사장



이태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곽은섭
-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



이상준
- 국립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제훈
-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안호영** 국회의원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40	**이종민** 한전기술지주 대표 : AI시대의 주요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강연	14:40~15:00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 : AI 시대 전력 인프라 전력 확보에서 연료 · 유연성 · 비용 책임의 설계로
	15:00~15:20	**곽은섭**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 : 급증하는 AIDC · 반도체 수요, 지속가능한 전력망 구축 전략
	15:20~15:40	**이상준** 국립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첨단산업 · AI 성장을 위한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의 과제
	15:40~16:00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 : 新에너지인프라, AI데이터센터 분포 분석과 지속가능한 확충을 위한 시사점
질의응답	16:00~16:30	언론 질의응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경제



포스코DX, 장애인 유튜브 공모전 열어

포스코DX는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꿈을Green다'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콘텐츠를 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꿈을Green다'는 포스코DX가 포스코1%나눔재단 기금을 활용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국립공원공단, 월정사와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상 기획·촬영·편집 교육을 제공하고 공모전과 후속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포스코DX



카카오, '2027 점자달력' 8000부 무료 배포

카카오는 4일 '2027 카카오 점자달력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 8000부를 제작해 전국 시각장애 특수학교와 관련 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카카오의 김혜일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DAO, 오른쪽)가 국립서울맹학교 정은영 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



CU, '우리 부대 응원 캠페인' 통해 간식차 지원

CU는 하나은행·하나카드의 하나나라사랑카드와 함께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포켓CU에서 진행한 '국군의 날, 우리 부대 응원 캠페인'을 마무리하고 군종별 최다 응원을 받은 총 4개 부대에 간식을 지원한다. /CU



스타벅스, 수능 앞두고 응원 선물 수요 공략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달 출시한 수능 기프트 시리즈가 수험생 응원 선물로 관심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프트 푸드는 초콜릿과 찰떡, 쿠키 등을 활용한 5종으로 구성했다. 제품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상품은 '인절미 찰떡파이'다. 개별 포장과 수능 시즌 한정 패키지를 적용해 선물용으로 기획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명지전문대
글로벌 AI 해커톤 연다

1지역 주민들이 직접 인공지능(A) 로봇을 만들어 동네 현안을 해결하고, 중남미 청년들과 아이디어를 겨루는 이색 해커톤이 열린다.

명지전문대학교 AI융합서비스학과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에서 지역사회 A1 리빙랩 'Step A1 Camp'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와 중남미의 볼리비아·코스타리카를 화상으로 동시 연결하는 글로벌 해커톤 방식으로 치러진다.

주제는 우리 동네 문제다. 학과 협약 기업들이 제시한 돌봄, 안전, 환경 분야의 실제 지역 문제를 다룬다. /김수정 기자

금투업계, 김치 80톤·3억9000억 기부 '역대 최대'

금융투자협회 '사랑의 김치페어' 86개사, 임직원·봉사자 1000명 초록우산 통해 200여곳에 전달



금융투자협회는 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제16회 사랑의 김치페어'를 개최했다. /허정윤 기자

주식과 채권을 다루던 금융투자업계 임직원들이 배추를 손에 들었다. 회사 대표부터 직원까지 함께 버무린 김치 80톤은 어려운 이웃의 겨울 밥상에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금융투자회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16회 사랑의 김치페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사 등 86개사가 기부에 동참했다. 이 가운데 74개사 임직원과 봉사자 등 약 1000명이 현장을 찾아 김장을 함께 했다. 각 회사 대표들도 앞치마와 위생모를 착용하고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일손을 보탰다.

이번 행사로 마련한 기부금은 약 3억9000만원이다. 지난해 3억4200만원보다 4800만원 늘었다. 이웃에게 전달할 김치도 지난해보다 6000kg 증가한 8만kg으로, 참여 기업과 기부금, 김치 기부량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김치는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을 통해 전국 200여개 사회복지시설과 아동양육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랑의 김치페어는 소외된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2011년 시작됐다. 2014년 48개사, 470여명이 참여해 김치 1만7500kg을 전달했던 행사는 올해 참여 기업이 86개사로 늘고 김치 물량도 4배 이상 확대됐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김장 김치가 익어가는 과정을 자본시장의 장기투자에 빗댔다. 황 회장은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시간이 흐르며 더욱 깊은 맛을 낸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지향하는 장기투자와 닮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회사의 정성과 임직원 여러분의 손길이 모여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의 방법을 꾸준히 발굴하고 실천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투자업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김장 나눔 외에도 취약계층 생활 지원과 장학사업, 금융교육 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기 적립금 지원과 청년·고령층의 금융역량 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AS부문 '1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2년연속 1위
에어컨 원격 상담으로 문제 해결

삼성전자서비스가 에어컨 이상을 미리 점검하고 원격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AS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6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에어컨 사후서비스(AS)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에어컨 AS 부문에서 첫 1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자리를 지켰다.

KS-SQI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서비스 품질 평가 모델로, 해당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조사에서 서비스 품질과 고객 신뢰도, 사회적 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에어컨 사용이 집중되는 여름철에 앞서 제품 이상을 확인하고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에어컨 원격 상담을 받은 고객 10명 중 6명은 엔지니어 방문 없이 문제를 해결했다.



4일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들이 KS-SQI 에어컨 AS 부문 1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원격진단은 가전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통해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올해 3월 진행한 에어컨 사전점검에서는 인공지능(AI) 진단으로 냉매량과 모터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사의 원격 상담으로 연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 AI연구원, AI로 저작권 침해 분석

'엑사원 넥서스' 개발 공로로
ICOTEC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

LG AI연구원이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위험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저작권 기술상을 받았다. 회사는 자체 AI 모델 개발에 적용한 이 기술을 글로벌 빅테크와 로펌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6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ICOTEC)'의 저작권 기술 어워드에서 '엑사원 넥서스(EXAONE Nexus)' 개발 공로로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엑사원 넥서스는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과 이용허락 조건,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AI 에이전트다. AI 학습 자료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응하고 사람이 방대한 데이터를 일일이 검토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됐다.

LG AI연구원에 따르면 데이터셋 1건을 분석할 때 법률 전문가가 검토하는 방식보다 속도는 45배 빠르고 정확도는 26% 높았다. 분석 비용은 기존 방식의 약 1000분의 1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석에는 한국의 AI 기본법과 유럽연합(EU)의 AI법 등 주요국 규제를 반영한 자체 검증 체계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의 법률적 타당성은 국내외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40여 명과 협력해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분석한 공개 데이터셋 2만여 개의 위험 평가 결과는 학계와 연구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넥서스를 자체 개발하는 모든 AI 모델의 필수 검증 절차에 포함해 데이터 수집·정제부터 모델 개발과 서비스 배포까지 전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할 수요가 높은 글로벌 빅테크와 로펌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韓 OECD 가입 30주년… 교육과제 모색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오늘 '韓-OECD 국제토론회'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교육 성과를 되짚고, 미래 교육의 과제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6 한-OECD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조연설은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기술국장이 맡는다. 슐라이허 국장은 한국의 고등교육 확대와 학업 성취를 돌아보고, 읽기 성취 하락과 디지털·AI 활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OECD 교육통계의 정책적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OECD의 주요 교육통계를 중심으로 한국 교육정책의 변화를 살피고 국제 교육협력의 의미를 짚는다.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최근 읽기 성취 하락, 학생 간 성취 격차를 분석한다.

오후에는 '대전환의 시대, 한국 교육의 새로운 30년'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좌장을 맡고, 스탠턴 윌섬 보스턴칼리지 교육대학장, 서울대 조영태 인구정책연구센터장, SK하이닉스 박한울 글로벌 인재 담당 부사장, 서울교대 신승기 정보교육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노사발전재단, 퇴직자 재취업 컨설팅

네이버·中企 IT 기업 '온품'
40세 이상 근로자 40여명 대상

노사발전재단이 네이버와 중소 IT업체 등 2곳에 퇴직자 재취업지원 관련 컨설팅을 실시한다.

재단은 4~5일 이틀간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에서 네이버 및 중소 IT기업 ㈜온품의 40세이상 근로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IT 업종 특화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재단과 네이버가 체결한 'IT 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확산 및 중장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처다. 네이버와 온품이 재취업지원서비스 공동컨설팅에 참여하면서 마련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인 사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육부장 원철스님 △미디어홍보실장 석두스님 ◇불교신문사 △주간 각진스님

부 음

▲오동일(향년 62세)씨 별세, 홍미향씨 남편상, 오상민(부산일보 사회2부 기자)·오혜진씨 부친상 = 4일 오전, 울산 동강병원 장례식장 특5호, 발인 6일 오전 7시. 052-241-1440.

▲박경한(향년 93세)씨 별세, 박균섭·균철·균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 최정희·고지연·이병희씨 시부상, 박창용·전용·민용·소영·승민·주영·해강·정훈씨 조부상 = 3일 오전, 전남광주 광산구 빛 장례식장 3층 특1호실, 발인 6일 09시, 장지 함평 나산 선영. 연락처 062-452-4000.

사람 살리는 정부가 연 예방중심 안전시대



기 고
이 용 석
노무사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두고 현장의 관심이 뜨겁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한층 넓어졌고, 현장의 안전 파수꾼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대폭 정비된 것이다. 현장에선 안전 패러다임이 '사후 대피'에서 '주체적·선제적 예방'으로 대전환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개정법 대응으로 인한 혼란이 공존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된점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주 의견청취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대상 규모 규정 및 추천 인원 제한 규정도 삭제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 의견청취 절차 없이 추천인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조항(제23조 제3항)이 신설돼 사측의 안전관리자 외에 진짜 현장의 목소리가 감독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의 확대다. 작업중지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법 개정의 핵심은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 확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범위 확대,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구제신청 제도 신설이다.

작업중지권이란, 현장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과거와 달리 작업중지권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노동자 스스로가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핵심적인 권리다.

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단계'까지 작업중지권 행사가 허용돼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넓어졌으며, 나아가 작업중지권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강력한 장치들을 마련했다. 첫째,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가 보고하면 관리감독자는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을 지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둘째, 정당한 작업 중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노동위원회에 곧바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제52조 제5항 신설)이 열렸다.

현장 노동자 개개인은 인사상 불이익이나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작업중지권을 단독으로 행사 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정법의 진정한 의의가 드러난다. 현장의 노동자 대표성을 갖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주체적으로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작업 중지 및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탄탄해진 것이다.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사문화된 작업중지권 및 수동적 대피에서 벗어나,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작업중지권을 활용해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이번 산안법 개정이 일터의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정부'의 국정 기조를 현장에서 굳건히 뒷받침하는 든든한 방어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남세종지역본부 공인노무사

지역주민 설득 빠진 'AI 데이터센터' 속도전



기자 수첩
조 민 선
〈IT부〉

"AI 데이터센터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정부 인사와 산업계가 모인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AI 데이터센터(AIDC)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될 만큼 핵심적인 사회기반시설이 됐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DC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한다. 행정적 인허가 절차를 줄인 AI 데이터센터 특별법도 내년 3월 시행된다.

그런데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지역 곳곳에서는 제동이 걸리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결성된 시민단체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중앙 정부가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한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냉각시설의 24시간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열기, 고압 송전설비로 인한 경관 훼손,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우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AIDC의 고압전선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1% 내외 수준으로 측정됐다. 그러나 수치만으로는 불만을 해소하지 못했다.

해외에서 비슷한 이유로 AIDC 건립 도중에 중단한 사례가 있다. 미국 데이터센터 심장부로 알려진 버지니아주에서 빅테크 기업이 추진하는 수십 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줄줄이 백지화됐다.

구글은 최근 수자원 고갈 문제를 방치하고 비밀리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각돼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행정 소송 중이다. 메타는 주민들이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시장 해임까지 거론하며 집단행동에 나서자 건물 설계를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물론 갈등을 넘어선 사례도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안양에 AIDC 건립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혔으나 특고압선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전자파가 10밀리가우스를 넘으면 차폐판을 보강하겠다고 설득한 끝에 준공에 나설 수 있었다.

내년 3월 시행될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도 주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주민들이 기댈 곳은 지자체의 행정 의지뿐이다. 아직까지도 "즉각 조례를 제정하라!"는 현수막이 걸리는 배경이다. 설득 과정이 가속 페달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지혜를 모을 때다.

/msjo@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5일 (음 9월 2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결과를 잘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60년생** 큰 금전거래는 다음을 기약하세요. **72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84년생** 진로문제로 갈등 있겠습니다.

소 **49년생** 모임을 참석하면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61년생** 생각도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73년생** 무리를 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불가합니다. **85년생** 옛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세요.

호랑이 **50년생** 문서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실속이 없습니다. **62년생** 허황된 재물에 투자마세요. **74년생** 남방에서 귀인이 돕겠습니다. **86년생** 사방에 욕심꾸러기와 도둑놈이 보입니다.

토끼 **51년생**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3년생** 북서쪽으로 곧장 가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75년생** 부부금슬이 좋아집니다. **87년생** 매사 대길한 운이니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세요.

용 **52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64년생**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소홀히 마세요. **76년생** 달도 차면 기울게 됩니다. **88년생** 평생 배필을 만날 수 있으니 주도권을 잡고 나가세요.

뱀 **53년생** 형제자매와 도모하는 일은 만사 대길합니다. **65년생** 문서관계를 조심하세요. **77년생** 귀하에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89년생** 명예가 오르고 관록에서 빛이 나니 주변의 인정을 받겠습니다.

말 **54년생** 선은 길하나 후는 흉합니다. **66년생** 주변에 당신을 해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78년생** 쥐띠, 돼지띠 배우자를 둔 이는 각별히 유의하세요. **90년생** 재물운은 좋고 이성관계 또한 발전합니다.

양 **55년생** 관재구설이 있으니 불필요한 시비나 다툼을 피하세요. **67년생** 주색잡기에 조심하세요. **79년생** 형제간의 우애에 힘쓰세요. **91년생** 유흥으로 인해 부모와의 마찰 있겠습니다.

원숭이 **56년생** 매사 불길하니 자중하고 기도하세요. **68년생** 집안의 문단속을 확실히 하세요. **80년생** 부인과의 문제에 친구나 형제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92년생** 좀도둑을 조심하세요.

닭 **57년생** 애인과 다툼 수 있겠습니다. **69년생** 전반적으로 무난한 운입니다. **81년생** 아랫사람에게 양보하면 길합니다. **93년생**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운이니 책임감을 갖고 임하세요.

개 **58년생** 자식이 효도하니 서운한 감정이 일시에 풀립니다. **70년생**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의식주가 넉넉해집니다. **94년생** 안풀리던 관제가 해결됩니다.

돼지 **59년생** 싸웠던 친구와 화해합니다. **71년생** 하늘이 복을 내리니 만사가 형통합니다. **83년생**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95년생** 북방은 흉하며 헛된 힘을 쓰지 마세요.



김상회의 四季

헌법이라는 울타리

헌법불합치라는 말이다. 불합치라면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헌법 위반이라고 말하면 쉬운데 왜 불합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 헌법불합치를 알려면 헌법소원을 알아야 한다. 헌법소원도 뉴스에서 드물지 않게 접하는 표현이다. 헌법소원과 헌법불합치는 공권력이나 법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개인의 권리와 삶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보호막인 것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의 법이나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또는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에 규정한 내용과 맞지 않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구제 수단인 셈이다.

이러한 헌법소원을 요청받은 헌법재판소가, 관련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대표적인 결정이 바로 헌법불합치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을 때, 곧바로 그 법률을 무효로 만들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세금 부과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자. 그렇다고 당장 법을 없애버리면 세금 행정이 마비되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때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다.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크니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해도 좋다는 것이다. 헌법소원과 헌법불합치는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장치다. 헌법소원은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헌법불합치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 자유와 권리가 사실은 수많은 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 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3		6					7
		1	3					9
			9	7			5	
						9	6	2
		2				7		
8	7	5						
	9			6	2			
2					4	3		
4					9		2	6

			6	2				5	
9						6			
					3	4			1
	9	3			6				2
		1	3			8	4		
4					7		5	1	
3				6	4				
				8					9
	8					5	3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8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재건축 분담금 극과 극… 은마 '추가 납부', 잠실5 '환급 전망'

은마, 같은 평형 받아도 4.3억 부담
면적 넓히면 13억 넘는 목돈 필요
잠실5, 기존 82㎡ 소유자 8.6억 환급
장위4구역은 입주 후 추가 납부
용적률·사업성 따라 조합원 희비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서울시

재건축·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받는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사업장마다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는 집 크기를 늘리지 않아도 수억 원을 더 내야 하는 반면, 잠실주공5단지는 비슷한 크기의 새집을 받고 돈까지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후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이 불거지는 등 사업 초기 예상했던 부담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의 희망 주택형을 신청받은 결과, 전용 84㎡는 공급 예정 물량 1354가구에 1934건이 접수됐다. 반면 전용 118㎡는 신청 건수가 공급 예정 물량 336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전용 143㎡ 펜트하우스는 56가구에 10건이 신청되는 데 그쳤다.

이는 면적을 넓힐수록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은마 조합의 분양신청 안내자료에 따르면 전용 84㎡ 소유자가 재건축 후에도 84㎡를 선택할 경우 평균 추정분담금은 약 4억3021만원이다. 전용 96㎡를 신청하면 약 8억5539만원, 109㎡는 약 13억914만원으로 늘어난다. 집 크기를 유지해도 4억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하고, 면적을 넓히면 부담은 더욱 커지는 셈이다. 다만 현재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치로, 향후 사업비와 분양수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포주공6단지도 기존 전용 53㎡ 소유자가 새 아파트 전용 84㎡를 신청하면 약 7억2000만원, 100㎡를 선택하면 11억원이 넘는 분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난 9월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자료에 따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전용 84㎡의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약 30억 3079만원으로 추산됐다. 기존 전용 76㎡ 소유자가 이를 선택하면 약 5억729만원, 81㎡ 소유자는 약 6억3077만원, 82㎡ 소유자는 약 8억6054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수영장·정구장 지분을 배분한다고 가정하고 예상 비례율 89.24%를 적용한 계산이다. 기존 주택에 따른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아 차액을 환급받는 구조다.

입주가 끝났다고 비용 부담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에서는 입주 이후 추가분담금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이 최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2026년 관리처분 부담금 계산 안내문'에 제시된 최종 비례율은 71.59%다. 입주를 마친 조합원들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추가 자금 부담을 안게 됐다.

추가분담금과 환급금을 가르는 기준은 조합원이 받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와 기존 재산을 반영한 권리가액의 차이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권리가액보다 높으면 차액을 더 내고, 낮으면 돌려받는다. 권리가액은 기존 주택의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사비·금융비용이 늘거나 일반분양 수입이 줄면 비례율이 낮아져 조합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단지별 분담금 차이를 가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용적률 차이'를 꼽았다. 그는 "기존 용적률과 재건축 후 확보할 수 있는 용적률의 차이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과 사업성이 달라지고, 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DL이앤씨, 중유동 콘크리트로 품질 높인다

전 현장 적용해 외벽 결함 88% 감소
실시간 수분 측정·디지털 품질관리

DL이앤씨가 현장에서 물을 더 넣지 않아도 잘 흐르는 콘크리트를 모든 현장에 적용한다. 고층 건물이나 철근이 촘촘한 구조물에 콘크리트를 부을 때는 콘크리트가 좁은 틈까지 흘러 들어가야 한다. 작업을 쉽게 하려고 현장에서 레미콘에 물을 더 넣으면 배합이 달라져 강도와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

DL이앤씨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모든 현장에 중유동 콘크리트를 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재료 배합을 조정하고 혼화제를 넣어 현장에서 물을 더하지 않아도 콘크리트가 잘 흐르도록 한 것이다. DL이앤씨가 현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콘크리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외벽 면적은 일반 콘크리트를 썼을 때보다 약 88% 줄었다. 외벽 균열의 개수와 총길이도 줄었고, 바닥이 평탄하게 시공된 비율은 높아졌다.

현장에 들어오는 레미콘은 자체 개발한 장비로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콘크리트 1㎥에 들어 있는 물의 양인 '단위수량'을 확인해 배합이 적정한지 살피는 방식이다. 콘크리트를 부은 뒤에는 온도 측정 센서를 통해 콘크리트가 굳는 환경을 확인한다. 품질 시험 결과와 온도 등은 디지털 품질관리 시스템 'D-DQMS'에 모이고, 측정값이 기준을 벗어나면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담당자가 원인과 조치 내용을 등록하고 품질관리 책임자가 이를 검토해 승인해야 처리가 끝난다.

DL이앤씨는 내년부터 콘크리트 원료인 모래와 자갈에 흙 성분이 섞였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기술도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 품질 투자와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고도화를 통해 콘크리트 품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채리 기자

주택 공급 확대에 노사 갈등·자재 수급 변수

건설노조, 원청에 단체협약 체결 촉구
타워크레인 파업·레미콘 운송 차질
공사 지연 우려에 현장 안정화 과제


22일 서울 남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설노조 총력 상경투쟁에서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노사 분쟁과 자재 수급 차질이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월 수도권 레미콘 운송 차질로 건설현장 105곳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됐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와 하청노조의 교섭도 본격화했다. 갈등을 해결하고 공급 목표가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원청 건설사와 한국전력에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노조가 제시한 현장 문제는 임금·장비임대료 체불, 중대재해, 불법고용, 불법하도급이다. 노조는 현장의 안전과 고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교섭에 참여하고, 노사가 안전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건설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3월 10일 원청 종합건설사 93곳과 한전에 교섭을 요구했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8월과 9월 첫 교섭에 들어갔고, 지난달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도 상견례와 첫 교섭 일정을 잡았다. 노조는 "기준 건설사 76곳을 상대로 교섭을 추진 중이지만 단체협약 체결 사례는 없다"며 "일부 건설사는 사용자성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5월 파업에 들어갔다가 임금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 6월에는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노조 간 운송단가 협상 과정에서 수도권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2개 건설사의 105개 현장에서 약 10만㎥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됐다. 골조 공사는 철근과 거푸집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붓는 순서로 진행된다. 타설이 밀리면 뒤이어 투입할 인력과 장비 일정도 바뀐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도 건설업체들이 공사 지연을 신고한 사례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건설 관련 협회 12곳을 통해 실시한 불법행위 피해사례 조사에서 329개 현장이 공사가 지연됐다고 응답했다. 업체들이 신고한 지연 기간은 2일에서 120일이었다.

다만 원·하청 교섭이 주택 착공 일정 전반의 차질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채리 기자 cr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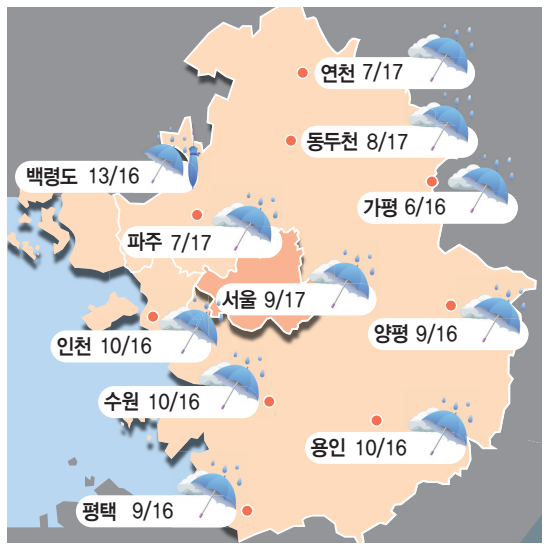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01 | 해짐 / 17:30

11월
5일 (木)
음력 : 9월 26일

수도권 날씨
9~1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대우건설, 나이지리아 비료 플랜트 수주

인도라마 발주 3500억 규모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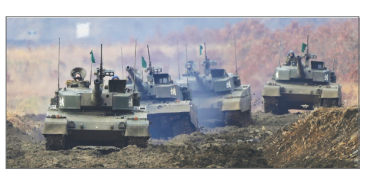
대우건설은 글로벌 석유화학 그룹 인도라마의 나이지리아 자회사인 IFFZE(Indorama Fertilizer Free Zone Enterprise)로부터 비료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낙찰통지서(LOA1)를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나이지리아 리버스(Rivers)주 포트하코트(Port Harcourt)에 하루 암모니아 2300톤, 요소 4000톤 및 요소결정 4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시공을 수행하게 되며, 계약금액은 약 3500억원 규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나이지리아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1,2,3호기 및 부대 설비 공사들을 성공적으로 준공한 데 이어 연달아 수주에 성공했다"며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발주처와의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재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30일 준공한 3호기에서는 핵심 마일스톤들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완료한 바 있다. 조기 가동 및 적기 준공 성과가 발주처의 신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거점시장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 장기간 축적한 풍부한 공사 수행 경험과 견고한 현지 네트워크, 검증된 파트너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최고 품질의 플랜트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중간선거 결과 수용… 민주당과 협력 준비돼 있어"
▲"日육상자위대, 이르면 2030년 사격 지휘 통제 시스템 통합" /사진 뉴시스

▲우크라 휴전 뒤 유럽군, 러 공격 땐 대응사격… 11개국 2800명 첫 훈련
▲中, '친중 기류 변화' 조짐 속 솔로몬제도에 물대포 사용 교육

▲中왕이, APEC에 '상호존중·단결협력' 강조… 장관급 회의는 화상으로
▲日방위상, 핵 둘러싼 "논의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28호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홈플러스
M&A 난항
셧다운 우려
L1



핀테라퓨틱스
美 FDA
패스트트랙 지정
L2

비상식에서 일상식으로 세계 밥심의 새로운 표준 짓다

'밥은 집에서 지어 먹는 것'이라는 오랜 통념을 깨고 한국인의 식생활을 바꾼 제품이 있다. CJ제일제당의 즉석밥 브랜드 '햇반'이다. 1996년 출시된 햇반은 밥이 부족할 때 꺼내 먹는 비상식에서 집밥을 대신하는 일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제품으로 영역을 넓히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CJ제일제당 '햇반'

1996년 국내 최초 무균포장밥 선봬
맞벌이 증가로 일상식으로 자리잡아
백미 중심에서 잡곡밥·솥반 등 변화
건강까지 생각하는 가정간편식으로

무균포장 시스템으로 장기보관 가능
자체 도정설비, 당일 도정 쌀 경쟁력
최적의 곡물 비율로 영양성분 설계

국내시장 넘어 해외 60여개국 진출
한국밥 특징인 찰진밥으로 '차별화'

◆집에서 짓는 밥에서 '사 먹는 밥' 시대 연 햇반

햇반의 역사는 199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내에서는 밥을 직접 지어 먹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가공된 밥을 구매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다. CJ제일제당은 이러한 식문화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 최초의 무균포장밥인 햇반을 선보였다.

제품 개발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무균포장밥 생산을 위한 초기 설비투자에만 최소 100억원이 필요했다. 경쟁사들이 고온살균 방식의 레토르트 밥을 선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제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CJ제일제당은 갓 지은 밥맛을 구현하기 위해 무균포장 기술 개발을 이어갔다.

출시 초기 햇반은 갑작스럽게 밥이 부족하거나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비상식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1~2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비 양상이 달라졌다.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햇반이 집에서 직접 밥을 짓는 수고를 덜어주는 일상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햇반은 백미 중심의 즉석밥에서 잡곡밥과 솥반, 햇반컵반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했다. 단순히 밥을 간편하게 먹는 것을 넘어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가정간편식(HMR) 브랜드로 영역을 확장한 셈이다.

최근에는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를 중시하는 소비 흐름에 맞춰 변화를 꾀하고 있다. 햇반 잡곡밥은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9년 국내 햇반 즉석밥 사업에서 10%대였던 매출 비중이 지난해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30년 기술력의 집약체…'갓 지은 밥맛'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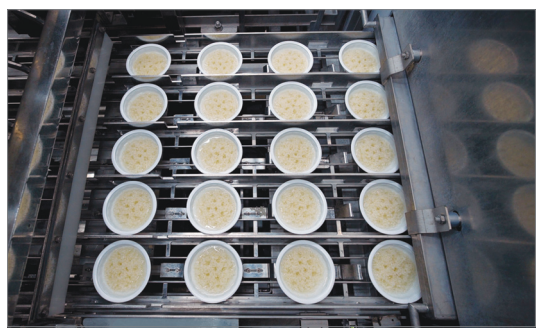
햇반이 즉석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배경에는 제조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다. CJ제일제당은 쌀 품종 선정부터 도정과 취반, 살균, 포장에 이르는 생산 전 과정에 자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은 무균포장 시스템이다. 햇반은 고온·고압으로 쌀의 미생물을 제어한 뒤 반도체 제조 공정 수준의 청결도를 유지하는 공간에서 살균된 포장재로 밀봉한다. 이를 통해 방부제 없이도 장기간 상온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밥맛을 좌우하는 도정 기술도 햇반의 핵심 경쟁력이다. 쌀은 도정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신선도가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CJ제일제당은 생산 당일 도정한 쌀로 밥을 짓는 방식을 적용했다. 또 자체 도정 설비를 활용해 쌀의 품종과 재배·보관 상태에 따라 도정 조건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쌀을 씻고 불리는 과정에서는 수분 흡수율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고온·고압 살균과 증숙 과정을 통해 일정한 식감을 구현한다.

포장 기술 역시 차별화 요소다. 햇반은 산소 침투를 차단하는 다층 구조의 용기와 필름을 사용해 보관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 CJ제일제당이 확보한 햇반 관련 특허는 해외 출원을 포함해 총 267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곡물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하는 기술을 넘어 영양성분 자체를 설계하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은 높이고 탄수화





무균포장 시스템을 갖춘 햇반 생산공정. /CJ제일제당

열량은 낮추는 영양 설계 및 성형쌀 기술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햇반의 기술력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활용되고 있다. 2009년 출시된 '햇반 저단백밥'이 대표적이다. 선천성 대사질환으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환자를 위해 일반 햇반 대비 단백질 함량을 약 10% 수준으로 낮춘 제품이다. CJ제일제당은 제한적인 수요와 낮은 수익성에도 현재까지 생산을 이어오고 있다.

국산 쌀 소비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하며 지난해 약 6만5000톤의 국산 쌀을 수매했다. 이는 1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공용 벼 품종 '동행'을 자체 개발하는 등 원료 수급 안정화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 넘어 세계인의 식탁으로

국내 시장에서 성장 기반을 다진 햇반은 이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 햇반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전 세계 60여개국에 진출해 있다. 해외에서는 주로 '비비고(bibigo)' 브랜드를 통해 한국식 즉석밥을 판매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17년 비비고 브랜드를 앞세워 미국 가공밥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최근 5년간 해외 매출은 연평균 약 30% 증가했다. 전체 햇반 매출에서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8%에서 지난해 15%로 확대됐다.

성장 배경에는 미국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가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민텔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쌀을 섭취하는 미국 소비자 비중도 2023년 37%에서 지난해 45%로 증가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찰기가 적고 밥알이 쉽게 분리되는 쌀에 익숙한 해외 소비자들에게 한국식 찰진 밥을 새로운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다. '비비고 스티키 화이트 라이스(bibigo Sticky White Rice)'를 중심으로 한국식 밥의 특징을 알리고, 볶음밥이나 스시뿐 아니라 스테이크와 치킨, 부리토 등 다양한 음식에 곁들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햇반을 2028년까지 국내외 연매출 1조5000억원 규모의 브랜드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해외로 수출중인 비비고 스티키 화이트 라이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39세 테니스 전설 조코비치, 파리 마스터스 최고령 승리 신기록

▲직장폐쇄 위기감…MLB 사무국, 샐러리캡 도입 1년 연기 제안 /사진 뉴시스

▲MLB 시애틀, 캔즐러 감독 선임…현역 2번째 30대 사령탑

▲'불멸의 무쇠팔' 故 최동원, 2026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

▲'19세 초신성' 야말, 음바페 넘어 'UCL 10대 선수 최다골'

▲LIV 골프 떠난 람 "PGA 투어 복귀 원하지만… 제안 없어"

SAMSUNG

The all-new
Galaxy Z Fold8
Galaxy AI ✨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